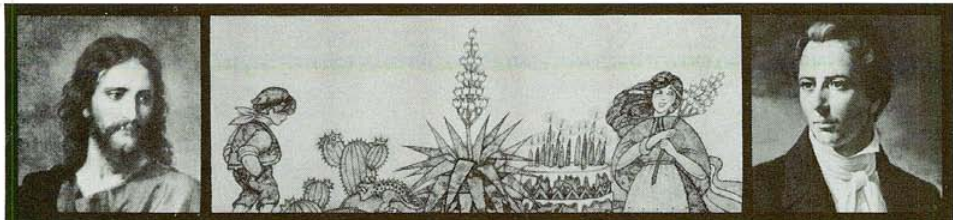




성도의 벗 12 198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차 례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엔 앨든 태너
매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힐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스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중키
앨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고문
영 러셀 벨라드 이세
호렌 시 던
렉스 디 피네가
찰스 에이 디메이
조지 피 리
에프 엠지오 부쉬

나사렛 예수.....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1

주님께 경의를 표하며.....조이 샌더스 런드버그..... 9

낙담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십시오.....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10

형님의 사랑.....디 브랜드 켈리트.....16

한밤의 경고.....이사벨 헨슨.....21

질 의 응답.....22

바바라 스미스.....조안 줄리.....27

상호부조치로 인해서
노래부르게 된 나.....패트리샤 더블류 헉비.....33

아론.....빅터 엘 루드로.....37

성탄절 선물.....레이 에이치 디어든.....45

어린 영국 선원의 모험 (제2부).....윌리엄 지 하틀리.....48

예언자의 성탄절.....53

성탄절을 위한 양고추냉이.....테드 세일.....55

안토니오의 촛불.....버지니아 지 존슨.....59

지역 지도자 메시지.....한 인상 지역 대표.....60

해외 소식.....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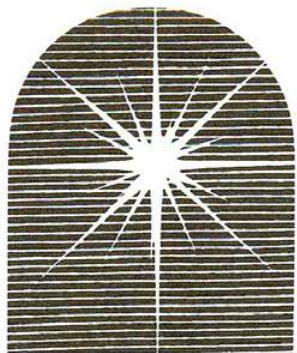
지역 소식.....63

성도의 빛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번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의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권 : 제197호, 제17권 제12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1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톨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상회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 1981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권진 조유



나사렛 예수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여러 해 전, 우리 부부는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님 내외분과 함께 성지를 순례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는 성탄절 전야에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종교인들과 또 호기심에 찬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몸을 구부리고 작은 문을 통하여 예수 강생 교회로 들어갔으며, 몇몇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구세주가 태어나신 성스러운 곳, 즉 구유라는 곳을 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있는 금속제 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별은 서서히 사라지고 누추한 구유와 그 옆에 여느 히브리 아기처럼 강보에 싸인 어린 예수를 들여다보고 있는 아름답고 사랑스런 여인이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는 이미 췌기워졌고, 소금으로 문

질러진 후 사자 강보의 한 모서리에 아기의 머리가 놓이게 하고 대각선으로 다른 모서리에 발이 놓이고 양 옆으로 아기 몸을 감싸고 발끝의 모서리는 위로 올려 아기를 썬 다음 강보의 띠로 아기의 몸을 둘러 매었습니다. 아기의 손은 양 옆으로 놓아 단단히 매었을 것이고 때때로 풀어서 올리브 기름으로 아기의 몸을 닦고, 도금양 나무의 잎 가루를 바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몸이 강보의 띠로 매어져 있었다면 애급으로 여행하는 동안 그를 쉽게 다룰 수 있었을 것이며, 어머니의 등에 업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겪으신 다른 경험보다 그분의 탄생을 더 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에서 탄생이 가장 주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태

어난 이유를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태어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수억의 사람들이 태어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가인도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가치없이 끝났습니다. 그의 일생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베로도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은 삶 그 자체를 정당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도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굶주림과 심한 고문으로 죽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이름도 없이 죽어 갔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창조의 목적을 다 수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이 죽는다는 그 자체 또는 언제 죽느냐 따위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에서 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에서 홍수로 수치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여기 뜻깊은 위대한 죽음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한 생의 길로 인도하는 부활의 길을 열기 위하여, 또 승영의 길을 보이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명을 피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의 출생은 초라했지만, 그분의 삶은 완전했고, 그분의 모범은 위대했으며, 그분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문을 열어 주셨고,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은사와 축복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분이 일찍 돌아가셨어도 첫째 되는 필수 요건, 즉 부활하여 불사불멸의 상태에 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위험으로 가득 찬 생활일지라도 더 오래 살아서 완전에 이르는 길을 굳게 다져 놓아야 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그는 위험한 생을 사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를 죽이라고 헤롯 왕이 명령했을 때부터 빌라도가 무자비하게 피에 굶주린 폭도들에게 그를 내줄 때까지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 속에 사시는 그분을 체포하는 자에게는 상금이 주어지게 되어 있었으며 결국은 삼십량이 주어졌습니다. 원수들만이 그분의 생명을 위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까지도 그를 저버렸으며,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끊임없이 그를 추격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신 후에도 그의 지도자들을 더 훈련할 때까지는 이 지상을 떠나실 수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사실일 동안 지상에 남아 제자서사도들을 훈련하셨고 사람들을 성도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일생에서 우리는 예언이 성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된 대로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사 53 : 3)였습니다. 그가 즐거움과 슬픔을 겪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의 백성을 잘 인도하실 수 있었으며, 우리에게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것이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완전의 경지에 도달하려는 권고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평생 역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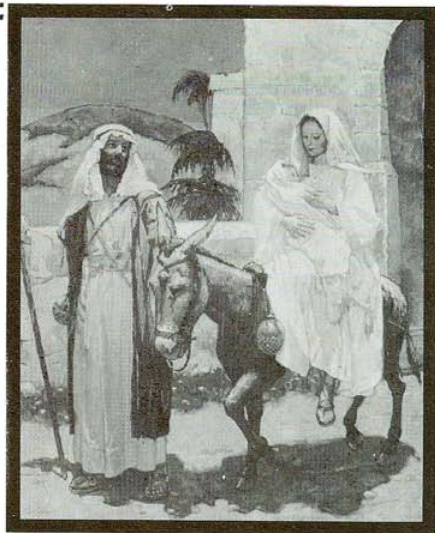
가운데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매일매일의 생활은 그의 권세, 능력 그리고 힘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출생한 순간부터 그의 일생은 피로운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이스라엘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안조차 누리지 못하고 말구유에서 태어난 그는 환영받지 못한 나그네였습니다. 사관에는 그를 맞이할 방이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기였을 때, 그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먼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 여행은 두려움으로 급히 도망가는 여행이었으며, 어린 아기에게는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그는 역경과 모래 폭풍과 기근을 이겨 내야 했으며, 새로운 음식, 새로운 관습, 새롭고 낯선 세상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의 여행은 더 길고 더 험난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여행도 역시 비정한 통치자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의 형제 루시퍼는 그가 아직 열두 살의 어린 소년일 때 한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눅 2:49) 드디어 사탄이 그분을 시험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세에서 그들은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었으나 이제 예수는 어리고, 사탄은 많은 경험을 겪은 노련한 상태였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사탄은 이 성장하고 있는 구세주를 꾀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모든 유혹을 예수는 일언지하에 거절하며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마 4:10)

그는 참으로 외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병 고침을 받은 자에게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막 1:44)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과 신하심을 안 자들은 나가서 그 이야기를 전파하고 퍼뜨리어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막 1:45)입니다.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공격을 받았 습니다. 그는 진리를 옹호해야 했습니다. “왜 당신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느냐?” “왜 당신은 안식일에 병을 고침으로써 안식일을 범하느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때문에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의 적들이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들까지도 그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들려 나섰습니다. (막 3:21 참조)

그가 어느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주 혼자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에게서 위로를 받으려 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외로우셨으며, 믿을 사람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 (눅 9:58)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실 때도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때 제자들이 그를 깨우며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4:38) 라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의 택하신 십이사도에게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요 6:70) 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는 그 후에도 매일 자신을 팔자와 함께 다니셨습니다.

자신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또 원수들을 피해야 하고 또 그 시간을 기다리기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가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 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요 7:1)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름이 나지 않기를 바랐으나 “숨길 수” (막 7:24) 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장 실망하신 때는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였습니다. 그를 맞아들이는 자는 아무도 없었으며, 다만 호기심

과 냉대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막 6:3) 고 말하며, 예수님이 평범한 곳에서 태어난 평범한 사람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를 체포하도록 도와 준 것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육체적인 폭력이 항상 그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그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합세하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항상 그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말 한 마디로 무화과나무의 잎을 마르게 하실 수 있으셨던 그로서 그의 원수를 저주하기를忆제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것처럼 모욕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배반자가 그에게 입맞추었을 때도 그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폭도들에게 잡혔을 때, 그는 충성스러운 사도 베드로가 그를 방어하는 행위를 하도록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열두 명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 모을 권능이 있었으나, 그는 스스로 굴복하여 그의 용감한 사도들에게도 자신을 비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이같은 인간의 처사와 모욕에 대해 분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가 “네 원수를 사랑하라” (마 5:44) 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 때도 조용하고 침착하게 위엄을 잃지 않고 서 계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는 다른쪽 뺨을 돌려 대라는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는 위축되지도 않으셨고, 부정

하지도 않으셨으며, 항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에 대해 거짓 증거할 때도 그들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씀을 왜곡하여 그릇되게 해석하였으나 그는 조용히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너희를 뺨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그를 산 은화의 은을 만드신 이, 장막의 양편에 있는 옹호자들을 명하실 수도 있는 이께서 그대로 서서 고초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는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눅 23:18)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눅 23:21)이라고 외치면서 그의 피를 요구할 때에도 그는 원한의 말이나 독설이나 저주의 말을 하지 않으시고 다만 잠잠하셨습니다. 이러한 성품이 하나님의 위엄, 능력, 자제, 의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바라바, 그 바라바는 살아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악한 자와 가장 선한 자, 의인과 악인 중에서 거룩하신 이가 십자가에 못박히셨고 악인이 풀려 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복수를 피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악담을 하거나 저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무죄하다고 선언되었으나 조롱당하셨습니다. 합당치 못한 자들이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묶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한 마디의 말만 나오면 그의 모든 원수들이 지상에서 비참하게 쓰러질 것이며, 모든 자들이 멸



망당하고 모두 먼지와 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없이 고통을 참아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가서 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 잔혹한 행위입니까? 그러한 중에도 그가 보이신 평온함, 힘, 자제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가지 면류관 사이에서 흐르는 피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마 27:25)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것도 그들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피에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으로 그들은 다소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그들은 잔혹하고 짐승같은 욕망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비인간적인 잔인함으로 주

님의 거룩하신 얼굴에 더러운 침을 뱉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쳐서 피가 흐르는 그에게 자신이 달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아무 짐도 지지 않은 건장한 그들은 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는 가엾은 죄생자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을까요? 아직도 열두 무리의 친군들이 그의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그들은 칼을 빼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도움을 주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그는 홀로 그의 길을 가셨습니다. 연약하고 떨리는 그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십자가가 땅에 박혔습니다. 그의 육신이 찢겼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고통입니까! 행여 몸이 땅에 떨어져 소생할까 두려워 그들은 다시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군중들이 그의 옆에서 그를 쳐다보며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 (막 15 : 31) 하고 조롱하며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상처나 해를 전혀 입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내려오실 수도 있는 주님에게 이 일은 얼마나 큰 시험이었겠습니까? 이것은 그에게 임한 큰 도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굳게 하시어 그의 사명, 곧 온갖 멸시를 당하고 종국에는 죽음을 당하여 그에게 귀기울이는 자들과 지상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사명을 피고 핏방울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그는 이 세상의 생을 끝내면서 자신의 권능을 “과시하고” 싶은 유혹을

자제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를 광야와 산과 성전 꼭대기에서 유혹하였던 루시퍼는 그의 추종자들을 충동하는 일을 훌륭하게 해셨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술책, 똑같은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눅 23 : 37)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눅 23 : 39) 고 말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핏박하였습니다. 수가 놓인 기다란 의복을 입은 성직자와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고향을 치고 조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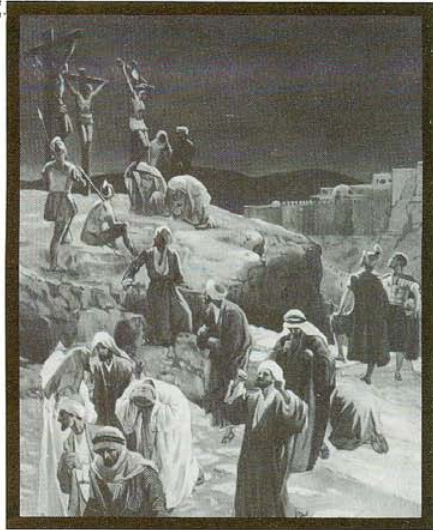
그의 최후의 시각이 왔습니다. 그는 군중 가운데 있었지만 혼자였습니다. 그를 위로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친사들과 함께 있었지만 혼자였습니다. 깊이 동정을 하며 아들이 혼자서 피를 흘리며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홀로 기운이 다해 죽어가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 27 : 46) 그는 동산에서 쓴 잔을 마실 힘을 간구하며 혼자 있었습니다.

그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이 원수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를 보이셨습니다. 그는 그에게 못을 박았던 그곳에 있던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죽을 때 과거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않았고 앞으로도 겪지 않을 번민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 23 : 34) 그분이 하신

마지막 말, 이것이 곧 지고한 행위가 아니었습니까? 자신을 죽인 자들 곧 그의 피를 갈망하였던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그의 인생 그 자체는 가르침의 완전한 모범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생애, 그의 죽음, 그의 부활로써 예수께서는 진실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삶과 사망과 부활이 완전을 성취하는 데 중요한 것처럼 탄생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나의 마음은 오늘날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의 아내와 우리들은 혼잡한 군중들에 의해 밀리고 당겨졌습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파 때문에 거의 압사할 지경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온 거룩한 목적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경건하게 조용히 사색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만한 산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산 위로 올라가 목자들이 있었던 들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계곡 아래는 보아스와 룻의 들입니다. 우리 눈앞에는 목자들이 한 때 양을 쳤던 들판이 굽이치고 있었습니다. 언덕배기 위에는 굴이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그 놀라운 날 밤에 목자들이 잠을 깨어 별을 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굴은 밤의 냉기를 막아 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양떼를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근교에서 가장 조용한 곳인 계곡을 응시하면서 우리는 목자들이 했던 것과 같이 별빛이 찬란



한 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사들이 그날 밤에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웅장하지는 않으나 교향곡의 화음을 이루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 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시대의 멜로디였던 천사들의 합창을 듣는 듯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하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파고들자 우리 네 사람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 멀리 유대의 넓은 들에” 찬송을 부른 후, 우리는 별이 빛나는 밤에 외투를 꼭 감싸고 서로 가까이 섰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가까이 모여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빛 이외에는 별빛이라고는 없었으며, 우리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 : 14)

의 나즈막한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아주 가깝게 계신 것 같았습니니다.

그의 아들도 가까이 계신 것 같았습니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니다. 한 사람의 음성처럼 하나가 되어 네 사람의 마음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날 밤 기도를 드린 온 인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니다.

우리는 감사와 사랑의 기도를 드렸습니니다. 홍수가 나서 댐에 오랫동안 갇힌 물을 터놓은 것같이 우리의 음성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으며 경건함으로 용해되고, 만질 수 없는 하늘 나라의 힘에 의하여 부드러워져서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과 이곳에서 태어난 아기가 진실로 아버지의 아들임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프로그램은 진실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를 승영으로 인도해 주는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를 알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따르겠다고 말하였습니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그의 대의에 바칠 것을 다시 맹세하였습니니다.

그후 여러 해가 지났습니니다마는 항상 이 절기가 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의 사업에 바치겠다고 다시 맹세하고,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기쁨과 사랑과 감사에 대한 우리 기도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바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여러분의 생활에서 주님께서 맡으신 역할을 더욱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거나, 경전에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는 예가 되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를 말한다.

2. 가족들에게 구세주의 생과 사명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개인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질문한다.

3. 가족들에게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 구세주의 일생을 공부하는 것을 일상 생활의 습관으로 하도록 권고한다.

4. 이 기사에서 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읽고자 하는 성구나 인용문 또는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읽기를 원하는 보충 성구가 있는가?

5. 방문하기 전에 그 가정의 가장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러한 토론을 하면 더 낫겠는가? *

주님께 경의를 표하며

조이 샌더스 린드버그

성탄절 바로 전 가정의 밤에 우리는 특별한 손님을 초대하여 함께 가정의 밤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초대할 자매님에게 그녀를 초대할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마리 자매님, 우리는 자매님의 행동을 지켜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자매님이 구세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구세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그분을 직접 초대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초대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바로 자매님이네요.”

마리 자매는 자신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조용히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사는 아름다운 독신 여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녀에게서 관찰한 그리스도다운 성품에 대하여 말하자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덟 살 된 아들의 순서가 되

었을 때, 아들은 가슴이 벅차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에 마리 자매는 보수도 거절하고 여름내내 그의 낭독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 지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여러 달 후에, 아들은 학교에서 아주 잘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들이 무엇을 전하고 싶어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너무도 성스러워서 마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해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였던 영적인 느낌 때문에 우리는 그 후로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구세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다운 사람을 초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보다 구세주처럼 생활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영감을 받게 됩니다.*



낙담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
관리 감독단 제 1보좌

인생의 가장 큰 목적과 목표는 구세주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처럼 생활할 때 그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간증할 때 그를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증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인생의 완전한 목적을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훌륭한 일은 많이 하지만, 구세주와 그의 사명을 증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로운 생활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누구나 역경, 실망, 낙담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끝없는 문제들이 우

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 모두에게 닥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문제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애리조나주에서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할 때, 나는 총관리 역원은 교회 운영에 관한 것 이외에는 다른 걱정이 없을 테니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총관리 역원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총관리 역원들이 사생활에서나 가정 생활에서 또는 건강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은 정말로 다른 것들과 바꾸고 싶지 않은 시련입니다.

우리는 모두 킴볼 대관장님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 내가 관리 감독단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새로 지지받은 총관리 역원들이 성별반개 될 신전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성별 의식에 앞서 총관리 역원들은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셨던 킴볼 대관장님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는 며칠 후 심장 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사도들에게서 축복을 받으시는 그분을 보았을 때, 나는 “왜 지금까지 그 수많은 일들을 겪으신 분이 또 심장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것일까?”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마음에 작정만 하시면 순식간에 그분을 고치실 수 있으실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듯이, 주님께서서는 사도를 그의 예언자가 되도록 준비시키고 계셨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영의 속삭임을 받으며, 그 속삭임에 문을 열 예언자와 대관장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역경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 위하여 이러한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기

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어서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지조차도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며 합당치 못하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런 느낌은 주님과와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위하여 혼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하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바라던 바대로 응답되지 않음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까? 나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 날을 두고 특별한 것을 위하여 간구하였으나 여러분이 바라던 바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내게는 있었습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나 낙심하여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나는 합당치 못한 모양이다.” 또는 “내가 표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기도에서 그러한 좌절을 경험한 후, 나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나의 부친과의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아버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항상 그분께 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그분은 나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가 무릎을 꿇고 그에게 말할 때마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전달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된 행동

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나는 또한 그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가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대화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응답을 듣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거나 또는 우리가 그 응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할 때 그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간혹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을 쌓게 됩니다. 이 벽은 회개하지 않은 죄로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 벽에는 크기와 모양이 다른 갖가지 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붙친절했기 때문에 생긴 돌이 있습니다. 지도자나 교사를 비난하여 쌓이는 돌도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서 또 다른 돌이 쌓입니다. 비천한 생각과 행동은 이 벽에 상당히 큰 돌을 쌓게 됩니다. 부정적도 또 다른 돌을 쌓아 놓습니다. 이기심도 또 다른 돌을 쌓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벽을 쌓으며 간구할 때도 주님은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쌓은 벽에 부딪쳐서 다시 되돌아가고 맙니다. 주님의 메시지가 자신에게 도달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이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거나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이 벽은 매우 견고하여, 이 벽을 부수기 위하여 일생 동안 투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자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나는
합당치 못한 모양이다.”
또는
“내가
표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를 정화시켜 우리가 영을 맞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가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 화가 났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곁에 가기가 싫어집니다. 이러한 행위는 용서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 해 전,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나는 이 용당하였다고 느꼈고, 그 사람이 싫어졌습니다. 그 사람과 대면하기조차 싫었습니다. 길에서 그 사람이 맞은 편에서 오는 것을 보면 다른 길로 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 기도 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 일은 꽤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내 영혼은 그 일 때문에 계속 괴로웠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해 달라고 간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도 여전히 나는 그 사람이 싫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또다시 무릎을 꿇고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쳤을 때는 여전히 그 사람이 싫었습니다. 다음날 밤에도 그 사람이 싫었습니다. 일주일도 지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싫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기도만이 아니라 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기도를 한 후, 결국 나는 평화스런 마음으

로 주 앞에 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그 순간만은 나의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을 주께서도 아셨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 결국 변화가 온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을 막았던 돌이 그제야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태도에 따라 영의 속삭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즉 기도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 이해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즉시 응답을 받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 우리는 낙담하기 쉽습니다.

몇 년 전, 나는 교회 일로 독일에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독감에 걸렸습니다. 나는 가야 할지 어쩔지를 확실히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획된 것과 나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뉴욕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 여행한 나는 매우 피곤하였고, 몸이 불편했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혼자였으며, 독일어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있는 호텔에 투숙하였습니다. 나는 방에 들어가기 전에 약국에 가서 목 안을 소독하는 분무식 약을 샀습니다. 손가락 길이 정도의 플라스틱 튜브를 목구멍에 대고 단추를 누르면 튜브 안에 있는 약물이 분사되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방에 들어가 잠시 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목구멍에 약을 뿌리기 시작했을 때 플라스틱 튜브가 손에

서 미끌어졌습니다. 그것이 그대 목구멍을 타고 가슴까지 내려갔습니다. 튜브의 감각을 느낄 수는 없었으나 7.5센티 정도의 플라스틱 튜브가 가슴 어딘가에 있는 것이 분명했으므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기침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까봐 걱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을 정도는 아님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앞으로 세 주일동안 내가 여행하기로 되어 있던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플라스틱 튜브 제거 수술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장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침대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지리도 모르고 독일어도 할 줄 모르며, 아는 의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며,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 그 튜브를 빼달라고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이 초만에 튜브가 목구멍에서 나왔습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이 즉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인지 의심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약 이십 이년 전에 우리의 네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아내에게 앞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우리에게 아기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를 하나 더 갖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년이 지나도 아기는 주어지지 않았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인지
의심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입니다. 이 년이 지났습니다. 팔 년 동안 기도한 어느 날 마침내 아내가 “어보, 이제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때는 기도가 그 즉시 응답되나, 어떤 때는 오랫동안 기도를 한 끝에야 겨우 응답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영의 속삭임을 듣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할 때, 행하라는 영의 지시를 받고 그에 순종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는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할 수 있다면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혼자 있을 수 없더라도 내가 제안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지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종종 우리는 무릎을 꿇고 너무 빨리 기도를 시작하여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 인지를 염두에 두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자주 머리 속에 구세주의 모습을 그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생기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무릎을 꿇고 깊이 사색을 하면 어떤 형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는 분에 대하여 생각할 때, 큰소리로 그를 부르십시오. 또는 원한다면 그에게 속삭이십시오.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그에게 진실하고,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바에 대하여 말하십시오. 그가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십시오. 그

에게 모든 것을 수감없이 털어놓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바를 말하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의 영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나 큰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큰소리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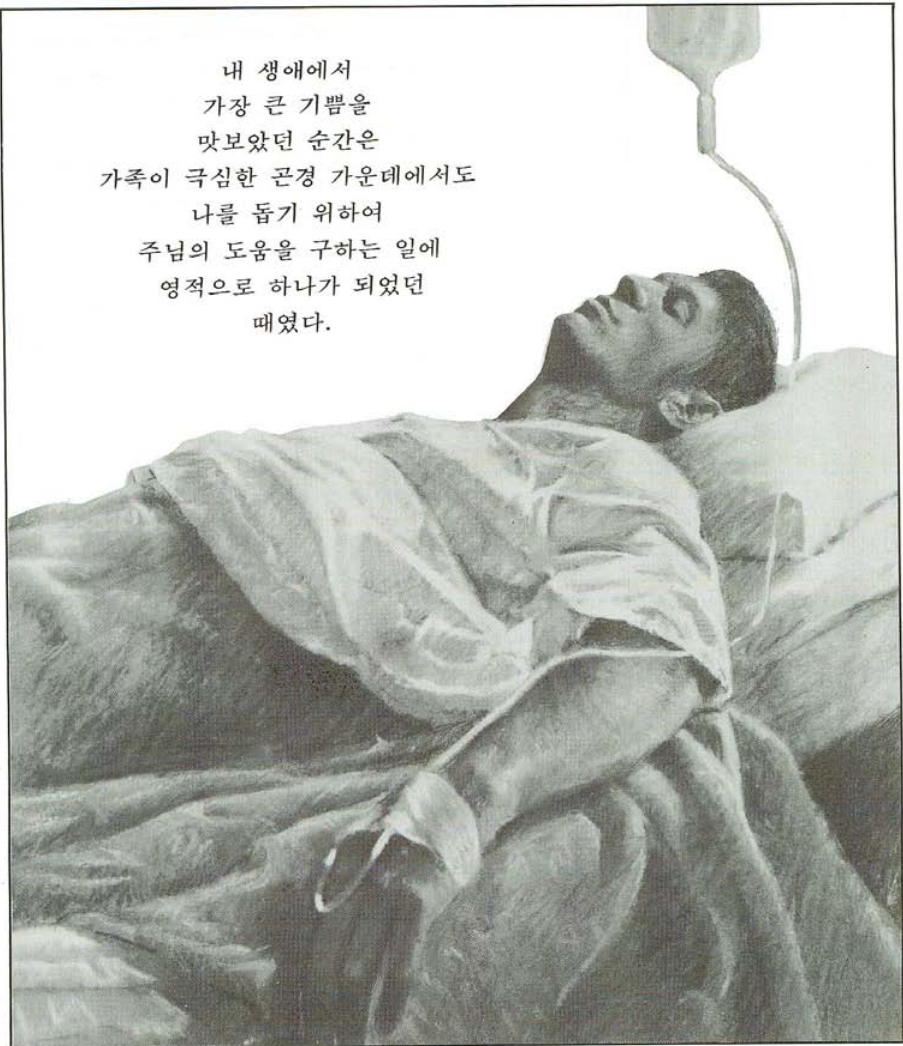
주님께 말씀드린 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의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응답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1분, 2분, 5분 또는 15분 동안이나 기도를 하면서도 단 1초도 들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의자나 침상에서나(기도를 드린 후) 계속 무릎을 꿇은 채,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다는 따뜻한 느낌이 생길 때까지 1분, 2분, 5분 또는 15분을 앉아 있으면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마침내 찾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영을 느끼는 자에게 위대한 경험이 임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께서 하늘에 제심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기도없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나 그의 아들 구세주를 알 수 없으며,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에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형님의 사랑

디 브랜드 컬리트

내 생애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보았던 순간은
가족이 극심한 곤경 가운데에서도
나를 돕기 위하여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에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던
때였다.



내 생애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보았던 순간은 가족이 극심한 곤경 가운데에서도 나를 돕기 위하여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에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던 때였다. 나는 체험을 통하여 주님께서 왜 우리를 가족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조직에 두셨는지를 배우게 되었다.

나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 신장 질환에 걸린 적이 있었다. 해가 거듭되는 동안 나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었고 결국 위험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신장 두 개를 모두 절제해야만 했다.

1968년 1월, 나는 워싱턴 대학 병원에 입원하였다. 의사가 부모를 불러 내어 나의 건강 상태가 몹시 악화되어 있으므로 그날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였다.

아버지와 가까운 친구가 내게 병자 축복을 해주셨다. 그리고 어머니가 지갑에서 나의 축복사의 축복문을 꺼내 몇 줄을 읽어 주셨다. 어머니는 간증을 하고 나에게 축복문을 주었다. “너는 위대한 사명을 수행해야 할 사람이야. 주님께서 너를 도와 주고 싶어하신단다. 그러니 너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수행해야지?”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시며 몸을 굽혀 내게 굳나잇 키스를 해주셨다.

아버지도 간증을 하시고 내 손을 잡아 주시더니 가슴을 가볍게 도닥거려 주시며 “잘 자라, 내일 아침에 보자.”고 말씀하셨다.

조용한 병실에 홀로 남게 된 나는 지난 일들과 축복문을 생각하며 누워 있었다.

어머니가 주신 충고를 생각하여 나

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은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었다. 기도를 드릴 때, 처음에는 완전한 생을 누리지 못한 나의 인생에 대한 쓰라림이 되살아났다. 그러나 계속 기도를 드리자 쓰라림은 점점 사라지고, 막중한 짐이 나에게서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다시 평온해졌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위로를 받았으며,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할 정도의 기력을 되찾기까지는 그로부터 약 두 주일이 걸렸고, 인공 신장기에 대한 첫번째 치료를 받기까지는 일곱 달이나 지나야 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참으로 유익하게 보내진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나의 첫번째 계획은 물론경 읽기였다. 나는 한 번에 여러 시간 동안 이 놀라운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진실함과 그것에 대한 사랑의 간증을 얻었다. 이제 인생은, 마치 불이 켜져서 전에 한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듯이,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나는 깨우침을 얻었고 교화받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었다. 오늘 나는 그 기간이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었음을 회고한다.

인공 신장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당시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설이 부족하여 극소수 사람에게만 사용이 가능했다. 신장 센터의 요원들은 누가 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누가 받을 수 없는지를 결정하였다. 내가 인공 신장 센터에 갔

을 때 나의 신청서는 약간 미흡한 데가 있었다. 부양 가족도 수입도 없으며, 다른 재원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용기를 주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훌륭한 가족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의사들은 나에게 것처럼 긴밀하고 협조적인 가족이 있으므로 내게는 항상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때문에 나는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장기를 새로 실험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신장 이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신장기를 달고 다니던 삼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에 대한 나의 신앙은 점점 커졌다. 나는 가족과 더욱 가까워졌고, 신장기에 의존하는 생명이었지만은 전보다 더 생을 사랑하였다. 전에는 내가 그토록 자유롭고 행복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 기계를 제거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이 목표는 다른 많은 목표들과 마찬가지로 곧 가족의 목표가 되었다. 우리는 가정의 밤과 가족 접견을 통하여 여러 차례 신장기를 그대로 달고 다니느냐 아니면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느냐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나는 우리 가족이 얼마간 떨어져 있다가 모두 함께 모였던 어느 주일을 기억한다. 선교 사업, 결혼, 대학 등의 이유로 우리 가족은 여러 해 동안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 그런데 1970년 성탄절에 우리는 모두 집으로 돌아와 만나게 된 것이다.

그 한 주일 동안 우리는 나의 건강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는 모두 신장 이식 수술의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가족 모두가 신장을 헌사하겠다고 자원하였다.

어느 날 오후, 형들과 함께 농구를 하다가 나는 잠시 물러나서 형들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훌륭한 운동 선수들이었다. 크레이그는 올림픽 수영단의 선수였고, 지금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다. 배리는 미국에서 뛰어난 축구 선수의 하나였으며, 지금은 노련한 스키 선수이다. 그리고 케빈은 미국에서 뛰어난 고등학교 농구 선수였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맙습니다. 형님들의 마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였다.

성탄절이 지나자 배리는 브리검 영 대학교로 돌아갔고, 크레이그는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돌아갔다. 나는 선교사의 임무에 충실하였으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 기도를 하던 중 놀랍고도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버지가 기도를 끝마쳤을 때 우리는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 우리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리의 느낌을 토론하였다. 그렇다! 모두가 똑같은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식 수술을 받기로 결정해야만 했다.

회고해 보면, 그 결정은 모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었다. 논리나 개인적인 감정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영이 지시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형, 배리에게 장거리 전화를 걸고는 신장 이식 전에 대하여 말하였다. 나는 형에

나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의 하나는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도움과 위안을 구할 때
온다는 것을 간증드릴 수 있다.

게 우리가 받은 응답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였다. 그런데 배리는 자기도 여러 번 그것에 관하여 기도를 드렸으며, 나에게서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고 나의 말에 동의했다. 나는 그에게 6월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으나, 그는 다음 날 수업도 빠뜨리고 집으로 왔다.

그러나 배리가 도착한 후, 수술팀은 그가 멕시코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앵무병(폐렴과 장티프스 비슷한 전염병)에 대한 면역이 길러졌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식 후의 나타날 반응에 대하여 걱정하였다. 결국 배리의 신장은 이식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약 두 주일 후에 우리는 또 다른 특별한 가정의 밤을 가졌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신장 이식에 대한 강한 권고를 받았다. 다시 나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크레이그였다. 또 한번 나는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 그로부

터 일주일도 안되, 크레이그는 아내 페니와 한 살짜리 아들 제이슨을 데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비행기로 왔다. 그날 오후 나는 병원에 입원하였고 크레이그 형은 다음날 입원하였다.

우리의 이름은 가족의 친구들에 의하여 런던으로부터 로스엔젤리스까지 6개 신전의 기도 명단에 올려졌다.

수술받기 전날 우리는 나의 병실에서 가정의 밤을 가졌다. 한 순간 나는 가족에게 이 이식 수술이 형의 희생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 것 같다고 말하려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쳐다보시면서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는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네 형도 이 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브렌트야, 우리 모두는 네가 함박 웃음을 웃으며 공원 잔디밭을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수술은 다음날 아침 6시, 간호원이

나에게 진정제를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날이 거의 다 지날 무렵, 눈을 떠 보니 부모님이 옆에 계셨다. 다시 내 병실에 와 있는 것이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날 저녁 가족 모두를 잠시 만나 보았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크레이그는 볼 수가 없었다. “형은 어때요? 형은 지금 어디 있어요?”

낮익은 손이 내 어깨에 놓여지더니 어머니의 음성이 들렸다. “브렌트, 형은 괜찮아. 그리고 네 새 신장도 좋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다시 잠이 들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레이그 형,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고맙습니다.”

이식 수술이 있던 후 며칠 동안 나는 수심에 찬 부모님과 형들의 얼굴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음을 눈치챘다. 크레이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나는 그가 죽었는데 아무도 내게 말해 주지 않는다고 확신하였다. 사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 수술 부위가 쉽게 회복되지 않았던 것이다.

셋째 날 오후에 아버지와 형이 크레이그를 데리고 오셨다. 그의 안색은 잘 익은 바나나와 같았다. 얇은 미소를 띤 그가 “건강은 어머니?”라고 물었다. 그의 고통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그 순간 나는 사랑이란 무엇이며 가족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이를 후, 의료 보고서는 나의 신체가 새로운 신장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상의 비상 수단이 취해졌지만 소용없었다.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가족이 나의 침상 주위에 무릎을 꿇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던 여러 날 밤에 대한 추억이 깊이 뿌리박혀 있다. 나를 살려 달라고 간구하며 우는 형의 기도를 들었다. 나는 조용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며, 손을 만져 주는 것으로 밤 인사를 대신하였다. 그러한 날들은 진실로 잊지 못할 순간들이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다.

신장에 대한 나의 신체의 거부 반응은 마침내 사라졌다. 크레이그도 곧 건강을 회복하였다. 오늘 의사는 내가 역사상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가장 건강한 수혜자의 한 사람이라고 보고하였다. 지금 나는 아름다운 아내와 두 아들과 딸 하나를 가진 가장이다. 지금 세 자녀의 아빠인 크레이그 형은 여러 해 전 왜 그가 그토록 서둘러 워싱턴주 시애틀로 여행했었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며 평범한 삶을 즐기고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의 하나는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도움과 위안을 구할 때 온다는 것을 간증드릴 수 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보여 준 가족의 사랑에 놀라고 있다. 가족을 생각할 때 나는 우리 복음 안의 가족의 진정한 가장이신 주님을 생각하게 된다. 나는 그의 사랑, 그의 헌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치르신 희생에 대하여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하여 특별한 간증과 감사함을 얻었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형의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

한밤의 경고

이사벨 헨슨



8월의 뜨거운 여름 밤이었다. 남편 딘과 여섯 자녀들은 자동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 남편을 쉬도록 하려고 내가 와이오밍 록스 스프링 외곽 지역에서 교대하여 운전대를 잡았다. 딘은 우리가 교대로 운전을 하면서 가면 밤중에 남편의 부모님 집에 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남편이 치의학을 공부 하였던 미주우리 세인트 루이스에서 아이다호로 들어가는 길에 들어섰다.

30번 고속도로를 돌아 유타주와 아이다호주의 접경에 있는 베어호를 향해 북 30번가로 들어선 후 곧 나는 우회전 표시를 보게 되었고, 그에 따라 비포장 도로로 접어들게 되었다. 나는 곧 포장 도로가 나려오니 하고 생각하며 한 동안 비포장 도로를 달렸다. 그러나 길은 점점 더 험해지고 있었다. 고요한 가운데 갑자기 “멈추어라” 하는 아주 분명한 음

성이 들렸다.

나는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를 아주 천천히 물고 있었기 때문에 곧 멈출 수 있었다. 잠자고 있던 가족들이 모두 깨어서는 “여기가 어디야? 무슨 일이야? 왜 여기 멈춰요?”라고 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멈추라는 음성이 들렸어. 뭔가 이상해.”라는 것 뿐이었다. 그러자 남편은 손전등을 꺼내 들고 차 밖으로 나갔다. 자동차 앞 두 바퀴가 운하의 벼랑에 걸려 있었다.

그때 나는 너무나 떨어져서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장남이 후진을 도왔다. 온 길을 되돌아갔을 때 우리는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작은 표시판을 보았다. 그 표시판이 너무 작아서 어둠 속에서 보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 여덟 명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데일 에프 피어슨, 브리감 영 대학교 대학 프로그램 책임자, 유타주 프로보, 플레전트 뷰 제 4와드 감독

저는
범법한 것을
회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
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특정한 비행에 대하여 진실로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행했는지 아니했는지 알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감독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의식의 문제는 항상 단순한 것입니다. 죄의식이란 우리가 죄를 범하였고 주님의 회개의 계획에 따라야 함을 말해 주는 좋은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난 후에도 죄의식을 갖는 것은 아주 해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랜 전의 있었던 범법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있으며, 또한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까지 죄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범법을 회개하고 나서 오랜 시일이 경과한 후에도 죄의식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대개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자존심의 결여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아주 가치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스려 나갈 수 없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어떤 여인은 여러 달 동안 외로움과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녀는 이같은 소외감을 자신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좀더 좋은 어머니라면 우리 가족의 유대가 보다 더 긴밀할 텐데.”) 그리고 자살에 실패한 후, 그녀는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토록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었을까?”)

그녀의 남편과 감독 그리고 스테이크 부장이 그녀에게 주님의 사랑을 확신시

키기 위하여 사랑을 가지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도와 주었으나 그녀는 자신이 용서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죄의식에서 헤어 나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모로는 죄의식을 갖는 것이 그녀의 삶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식으로 인하여 그녀는 “가치없는” 자신에게 계속 벌을 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종류의 해로운 죄의식은 분명한 이유가 없이 느끼는 죄의식인데, 그것은 주로 자신의 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사업계에서 성공한 45세된 어떤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는 자기 직분에 맞는 일보다는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직업 변화에 따르는 생활 양식의 변화를 가족들에게 감수해 달라고 부탁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직업에 혐오감을 느낀 나머지 자기 일을 피하려 했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면에서 무기력해짐으로써 그는 죄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와 형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같았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수행하였으며 그들 자신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고, 죄의식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죄를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도 계속 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나는 회개의 모든 단계를 마쳤는

가? (죄에 대한 인식, 애통, 고백, 보상 등)

2. 나는 주님의 용서를 구하였는가?

3. 나는 나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여 나의 짐을 주께 맡기었는가?

4. 나는 나 자신의 비행을 완전히 용서하였는가?

반면에 특별히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서도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나는 사물을 선과 악의 혼합으로서가 아니라 극단적인 것 다시 말해서, 완전한 선 또는 완전한 악으로 단정지으려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균형을 유지하는 태도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는 없는가?

2. 나는 가족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에게서는 소중히 여기는 좋은 친구들이 있는가?

3. 나는 진실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4. 주님께서 진실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가?

5. 내가 왜 죄의식을 느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상의 질문에 정직하게 답함으로써 그 사람이 정직하고 사려깊고 신중하게 노력해야 할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범법하고 회개가 필요할 때 섬광처럼 번뜩이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러나 뚜렷한 이유없이 계속되는 불 건전한 죄의식, 또는 회개를 한 후에도 계속되는 죄의식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건전한 관계를 해치는 것입니다. *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웨론과 웨인 드커 부부, 세 자녀의 부모이며, 캘리포니아 아카디아 스테이크, 몬로비아 와드 소속

안식일은
어린 아이들에게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구세주께서는 안식일을 헛된 욕망과 영적이고 육체적인 필요 사항을 구별하는 날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보통 어린 아이들은 아주 활동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이들의 안식일을 계획할 때 그같은 필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안식일에 활동을 해야 합니까?”라고 묻기보다는 “어린이들은 안식일에 어떻게 활동하여야 합니까?”라고 묻는 것이 아마 보다 합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일요일은 주중에 하는 일과는 다른 일을 하는 날임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빠가 직장에 가지 않고 잔디를 깎지도 않으며, 엄마가 장을 보거나, 대청소를 하거나, 과자를 굽는 등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녀들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쉬는 것보다는 다른 일을 한다면 자녀들은 안식일이 어떻게 생각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안식일은 친구들과 놀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날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지내는 날로 정합니다. 이날을 흥미롭고 즐거운 날이 되게 하는 것은 엄마와 아빠의 책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일만 강조하지 말

고 자녀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질문은 “이것이 적합한가?” 입니다.

이같은 질문은 읽기, 색칠하기, 노래하기, 악기 연주 등의 활동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아주 적합한 것이지만 이러한 활동만으로 하루를 보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자녀의 편지 쓰기를 돕기, 자녀가 자신의 개인 일지에 기록하기를 원하는 것을 대신 써 주기, 각 자녀와 개인 접견을 갖기,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기, 조용한 창작극을 하는 것도 안식일 활동에 알맞습니다. 합당성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준비량과 그 활동에 필요한 뒷정리의 양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친구들과 평일에 즐기던 것과는 다른 게임을 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모래밭에서 놀이를 하는 것이 일요일 활동으로는 적당하지 않지만 집짓기 등과 같은 건설적인 게임은 합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복음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나 신대륙으로 간 리하이의 여행 이야기를 읽은 후에 우리는 자녀에게 그들의 배를 나타내는 모형을

만들게 합니다.

자녀가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도움을 주는 열쇠는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다른 일요일 활동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자녀들과 유효적절하게 삼십 분씩 함께 보내는 것이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교회까지, 적어도 몇 분 동안이라도 걸어간다면 자녀들이 교회에서 조용히 앉아 있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자녀들이 일요일 교회 모임을 감사히 여기도록 돕기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적합한 활동의 유익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소리나지 않는 장난감이나 그림 공부 등은 어린 아이들에게 가치 있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들을 잘 감독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어른도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에 중심을 둔 책을 보면 기뻐합니다. 이러한 책은 교회에서와 다른 특별한 때에만 사용하는 책을 의미합니다. 자녀는 그 책이 다른 책들과 다르다는 것을 배우며, 그 책과 교회와 경전을 연관시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같은 훈련을 가능한 한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세에서 3세의 어린이도 모임의 일부에 참여하게 하여, 그들에게 “네가 좀더 자라서 가족과 모두 함께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참 기쁠 것이다.”라고 말해 줌으로써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모임 도중에 자녀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같은 경우 우리는 자녀에게 교회 안에 있는 거와 같이 조용하게 앉아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임 도중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장난에 대한 “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벌을 주게 되면 자녀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모임에 끝까지 참석하고, 성찬식이 끝날 때까지 그림 그리거나 장난감 놀이를 하지 않게 될 때 부모는 그들에게 모임을 정말로 보다 의미있게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나이 어린 자녀에게도 노래부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합니다. 찬송가를 함께 보고, 어린이에게 찬송가를 붙들게 하여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와 악보를 손가락으로 지적해 줍니다. 집에서 우리는 잘 알려진 찬송을 부르고 몇 가지 특별한 찬송을 가르칩니다.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123장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찬송가 128장이 우리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찬송을 교회에서 부르게 될 때, 그 모임은 자녀에게 매우 특별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매주 일요일에 부르게 될 찬송을

우리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미리 파악하여 가족에게 가르쳐서 준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와드(지부) 행사나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와드에서는 예배 시간에 어린이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어린이들의 모임에 대한 인식을 높여 줍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 연사의 말씀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도 좋지만 연사의 말씀에 대하여 간략하게 귀속말로 들려줌으로써 그 모임에 자녀의 관심을 쏟게 할 수 있습니다. (잡담은 단호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순간은 우리가 자녀에게 읽어 주었던 경전 이야기를 그들의 생활에 옮기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여기에서 자녀들은 그들에게 진실로 가치있는 예배의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림책이나 다른 방해가 되는 물건들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능력을 발전시키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안식일 활동을 계획함에 있어서 어린이에 대한 구세주의 사랑과 천국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아져야 한다는 그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지칠 줄 모르는 힘, 호기심, 열의와 같은 어린이의 성품을 단순히 관대히 다루어야 할 성품으로 여기셨습니까 아니면 길러 주어야 할 하나님다운 성품으로 여기셨습니까? 주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우리는 적합한 활동, 목표 설정, 가족과의 유익한 시간 등을 사용하여 자녀들이 안식일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나눌 수 있게 하기 바랍니다. *

바바라 스미스 : 봉사하라는 부름은 기쁨을 가져다 줌

조안 즐리

바바라 브래드쇼 스미스 자매는 백오십만 상호부조회 회원의 회장으로 그녀를 보고 있는 전세계의 여성들과 악수를 나누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 줌으로써 교회 자매들에게 친절을 보인다. 교회의 모든 여성이 그녀의 조용한 위엄에 매료되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스미스 자매와 개인적으로 만날 수는 없을 것이나 그녀는 그녀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자 할 것이다.

“아내는 교회 여성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그녀의 남편은 결혼하나 자부심을 갖고 말한다. 더글라스 에이치 스미스 형제는 그녀의 그러한 장점과 능력의 주요 원천으로 인정되어야 할 첫번째 인물이다. “우리의 한 아이가 언젠가 어머니에게 부름을 줄 때에는 우리 가족 모두를 성별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내가 하는 일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방법으로 온 가족, 곧 자녀, 손자, 이웃 친구들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내와 함께 일하고 도와 주고 지지하며 수고합니다. 우리는 아내가 우리의 모든 부름의 일부가 되어 주듯이 우리가 모두 아내의 부름의 일부가 되어 주기를 즐겨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화목한 가족입니다.”

스미스 자매는 상호부조회가 가족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축복을 인식하고 미소하는 것을 배우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기를 배우고, 이 짧은 현세에서 즐거워하기를 배우는” 사명을 수행한다고 느낀다. “상호부조회는 봉사와, 즐거움의 시간이어야 하고 주님의 영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은 항상 나를 축복해 주셨어요. 나는 부정적인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즐겁고 유쾌한 경험뿐이었어요. 물론 문제들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라고 회상했다.

그녀의 많은 사업 계획은 그녀에게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우리가 그러한 경험의 일부를 느끼도록 해주었다.

“스미스 자매님은 참 부담없이 접근하기 쉬운 자매님입니다.”라고 본부 상호부조회 서기인 메이올라 알 밀튼버리 자매가 말한다. “누구든지 따뜻하게 맞아 주시지요.”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매리언 알 보이어 자매는 “나는 스미스 자매님이 다른 사람의 일을 염려

하느라고 중요한 모임에 지각한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덧붙인다. 회장단 제2보좌, 셸리 더블류 토마스 자매는 “스미스 자매님은 항상 우아하셔요. 자매님을 바라보면 어떤 힘을 느낄 수 있지요.”라고 말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스미스 자매의 일곱 자녀 중 막내 딸이며 지금은 결혼하여 두 자녀의 어머니가 된 쉐릴린 엘바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어머니는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만사를 쫓겨 놓아요.” 우리가 한장 자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를 필요로 할 때 늘 어머니는 곁에 계시지요. 어머니의 의견과 권고와 조언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딸 릴리안 얼드지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어머니는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아는 은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여러 곳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셨어요.” 그녀의 사랑에 찬 관심은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미친다.

릴리안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한다. “언젠가 제 아이들(만이가 14세)에게 외할머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할머니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셔요.’라고 대답하더군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에게 시간은 매우 귀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의 전체 모임, 신전 여행, 손자, 손녀의 생일 잔치, 어린이들의 집에서 식사 등을 빠뜨리지 않기 위하여 매우 열심히 일을 한다.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 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에게
시간은 매우 귀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의 전체 모임,
신전 여행,
손자, 손녀의 생일 잔치,
어린이들의 집에서의 식사 등을
빠뜨리지 않기 위하여
매우 열심히 일을 한다.

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모두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어떤 사람이 성공하면 우리 모두가 그 성공을 기뻐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일에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으면 우리는 모두 적합한 범위내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의 짐을 나누어집니다.”라고 스미스 형제는 이야기한다.

그 사십년 동안 베니피살 생명 보험 회사의 사장이었으며, 최근에는 지역 대표로서 봉사하고 있는 스미스 자매의 남편은 상호 협정으로서 오랫동안 지켜 온 약속인 흔들릴 수 없는 협조와 지지를 이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들 부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의 책임과 교회의 책임을 받아들였고 서로 상대방을 돕고 협조하였다.

스미스 자매가 상호부조회에 부름받

은 것에 대해 스미스 형제는 곧 신뢰에 찬 지지를 보여 주었다. “김블 대관장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바라 자매, 자매님을 교회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시더니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글러스 형제님은 자매님의 부름을 지지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나는 대관장님께서 내게 아내를 지지하라는 특별한 부름을 주시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봉사의 부름이었습니다. 나는 대관장님께 아내는 내가 교회 일을 수행하는 35년 동안 나를 내조해 주었으며 이제 내가 아내를 지지하게 된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자매들은 스미스 자매의 잘 준비된 말씀을 들었거나 읽었고, 여성을 위한 노년의 모임을 진행할 때나 기차 회견을 할 때 다정하면서도 사업가다운 그녀의 태도를 발견했을 것이다. 그녀는 분명히 존경받을 만한 여성이다. 그러나 그녀가 적은 회중에게 개인적인 확신을 지니고 말씀을 전할 때는 그녀의 온화함이 쉽게 마음에 느껴진다. 또는 자매들의 손을 잡고 “자매님을 알게 되어서 참 기뻐요.”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진실임을 느낀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바바라 스미스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

우리는 그녀의 딸 릴리안 자매의 다 음과 같은 말이 사실 그대로임을 알 수 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어떤 방이나 장소를 떠날 때는 처음 들어갔을 때의 상태보다 나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떠나라고 가르치셨어요. 어머니도 사람에게에게는 그와 같이 행하지요.”

스미스 자매는 상호부조회와 모든 여

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전세계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관심사에 대한 자매님의 견해이다.

재조직된 상호부조회 스테이크 임원회에 관하여

우리는 스테이크 임원회의 제도를 개편하여 보좌들은 프로그램에 관련된 자료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장은 상호부조회 회원에 관련된 자료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였습니다. 이같은 개편으로 우리는 상호부조회 회원이 전보다 훨씬 강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로써 상호부조회 사업 전반에 가일층 힘을 주기 위하여 역점을 두어야 할 활동 분야가 확산되었습니다. 임원들은 중전에는 회장이 관할하였던 여러 분야를 감리하도록 임명되고 있습니다. 임원단의 각 임원은 다음 각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활동 촉진/선교 사업 교과 과정/현임 역원, 가사/유아반, 지도자 훈련, 음악/오락, 독신 성인의 상호부조회 활동 참여, 복지 및 방문 교육/자선 봉사. 일반적으로 말해서 와드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를 따르고 있는 것에 관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그 기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상호부조회의 잠재 능력에 관하여

우리 중 누구도 상호부조회의 조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진실로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조직을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이유는 오늘을 살기 위한 지식과 예지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학문을 통하여 얻게 되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인도하심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그러

한 지식입니다. 우리는 다만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훌륭하고 강한 여성들 덕분에 기초가 튼튼합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커다란 책임은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를 생활화하는 것에 대하여

교회의 여성들에게 모든 복음의 원리를 배우고 그것을 그들의 특별한 상황에 적응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주님은 우리에게 기혼자를 위한 경전과 미혼자를 위한 경전을 따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미혼자들은 곧잘 다른 사람들에게서보다 우리에게 더 잘 적용되는 공과를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한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적용되듯이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야 합니다. 원리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슬픈 일은 우리가 우리의 이해력을 우리 자신에게 국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이 원리를 내게 적용시키지 않습니까?”라고 말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 원리를 어떻게 내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원리를 행하는 모든 일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상호부조회에 가입하는 청년에 관하여

그들이 상호부조회의 중요성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 중에는 과거에 전혀 상호부조회와 접촉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을 갖고 나이든 자매를 관찰함으로써 큰 힘을 발견하고 그들이 이

조직에 기여해야 할 분야가 많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호부조회는 그들의 남은 생애 동안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일생 동안 지속되는 조직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축복하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 조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상호부조회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이 이 조직에 기여해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들 청녀를 위해 지도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분명히 여러분이 그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기여해야 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청녀들이 교사의 위치나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회장단에 있는 것도 봅니다. 나는 그들이 회원들에게 훌륭한 자매애를 발휘하는 것을 봅니다.

상호부조회와 선교 사업에 관하여

나는 선교부장이나 신권 및 상호부조회 지도자들로부터 상호부조회가 최근 개종자들을 활동에 참여시키지 않는 한 교회는 그들을 잃게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상호부조회가 자매들을 참여시키면 그들은 그들의 가족을 강화시킬 수 있고, 그들은 이 복음 생활에 쉽게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상호부조회에 참여할 때 그들은 잃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힘의 원천인 가정에 관하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를 힘의

가정은
 훌륭한 생활의 모범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자선 봉사가 시작되고
 모든 복음의 원리가
 배워지고 실천되는 곳입니다.

가정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진보하는 능력,
 악을 물리치는 능력,
 영원한 축복을 얻는 능력을
 얻도록 도와 줍니다.

원천으로 만듭니다. 가정은 신권이 작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정은 훌륭한 생활의 모범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자선 봉사가 시작되고 모든 복음의 원리가 배워지고 실천되는 곳입니다. 가정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진보하는 능력, 악을 물리치는 능력, 영원한 축복을 얻는 능력을 얻도록 도와 줍니다.

오늘날 세계의 악영향에 관하여

가정을 파괴하려는 것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악의 형태에는 이혼, 자녀 학대, 또는 부도덕, 침울감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파괴시키려 하고 자신의 가치를 비하시키는 것은 모두 악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가정에 힘을 불어넣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붕괴된 가정은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의 원천, 곧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함께 일하는 모범을 파괴시킵니다.

신권회와 상호부조회의 협력에 관하여

신권회와 상호부조회는 각기 하늘로부터 조직되어, 교회에서 중요한 목적과 책임과 힘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모든 사람을 위한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 주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신권회가 잘 운영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부조회가 진실로 신권회를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성은 동정심과 자선심이 강하며, 신권을 가진 형제가 이같은 자선 사업을 행할 때 그들에게 협조할 수 있습니다.

“자매를 지키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상호 봉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에게서 장점을 보고 “서로의 결점 찾기를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결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좋은 것만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향상하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도록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자기 중심적이며,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으려는 사회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회 풍토를 바꾸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서로 상대방에게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에 관하여

사랑이란 다만 말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 언행 뒤에 숨은 동기가기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와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상대방의 요구 사항을 살펴보고 사랑으로써 도와야 하는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평범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것은 곧 구세주와 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일을 할 때, 사랑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자매들을 위한 기도에 관하여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들에 대한 큰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자매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매들이 하나로 뭉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매들이 상호부조회가 그들을 돕고 상호부조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자매들이 서로 큰 사랑을 지니기를 기도합니다. *

상호부조회로 인해서 노래부르게 된 나

패트리샤 더블류 희비

그 울적했던 봄날 아침 어린 딸에게 들은 말이 아니었다면, 나는 상호부조회가 나를 도와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상호부조회에 참석하였을 것이다.

나는 그날 아침 부지런히 설것이를 하면서 부엌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밖은 어둡고, 눈보라가 치고 있었다. 보통 때 같으면 날씨 때문에 우울해 할 터였지만 잘 아는 찬송의 가사가 머리에 떠올랐고, 나는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아침 상에서 어린 딸이 “오늘이 상호부조회 날이지요?”라고 말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엄마가 공과책 읽는 것을 보았니?”라고 내가 물었다.

딸 아이는 킁킁 웃으며 “아뇨, 엄마가

노래를 불러서요.”라고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엄마가 노래 부르는 것 하고 상호부조회 날 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내가 물었다.

나의 반응을 보면서 딸은 천천히 대답하였다. “다른 날 아침에는 엄마가 항상 화를 냈잖아요!”

나는 아침 시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태도를 딸이 좀 과장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러나 딸은 그 나름대로 상호부조회에 가는 일이 나를 기쁘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왜 내가 상호부조회에 대하여 그렇게 열심인가에 관하여 생각하기 시작했다.

자매애와 봉사

나는 상호부조회에 참석함으로써 많은

친구들을 얻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환경, 재능, 취미, 정책, 이념이 다른 각 연령층의 자매들과 사귀었으며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그런 자매들에 대하여 염려하고 그들과 그 가족을 위하여 봉사하고 싶어졌다.

상호부조회가 인간에 대한 봉사를 그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로 삼고 있으므로 봉사에 대한 나 자신의 감정이 분명히 향상되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몇 년 전, 우리 와드의 한 형제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독감에 걸렸다고 말했다. 나는 예의 동정을 표하면서 아무 뜻없이 내가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는 “그러시다면 내일 저녁 식사를 좀 준비해서 갖다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다음날 나는 그 형제님은 아프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식사를 준비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 식사를 준비하느라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해 불평하였다. 이것은 최근에 수술을 받아 회복기에 있는 자매의 가족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면서 경험한 기쁨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었다.

이 두 가지의 경험에서 무엇이 나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었을까? 자신 봉사에 관하여 상호부조회에서 토론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와드에서 즐겁게 봉사했던 경험들이 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어떤 때는 너무 많은 자매들이 봉사하고 싶어하여 차례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상호부조회는 나의 재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었으며 심지어는 재능이 없는 분야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다. 예를

상호부조회는
나의 재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었으며
심지어는
재능이 없는 분야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다.

들면 최근에 어떤 자매가 브리감 영의 “여러분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여러분의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윌소, 솔트레이크시티 : 테저렛 출판사 1977년, 214페이지)라는 말씀을 인용하였을 때 나는 기분이 좋았다. 젊었을 때, 나는 바느질을 싫어하였으며, 바느질이 나의 재능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나의 옷과 자녀의 옷을 만들면서 만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재능들은 상호부조회에서 얻은 직접적인 결과이다.

나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 사실 내가 십대이었을 때 어떤 친구는 교회에서 함께 앉아 노래를 부르다가도 멈추어서 이상한 목소리를 낸 사람이 자기 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버리곤 했다. 그런데 와드에서 스테이크 준비 모임을 위한 소규모 노래 그룹의 한 파트로 내가 꼭 필요하게 되었다. 그날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의미를 알게 되었다. 지금도 노래를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상호부조회에서 연습하는 중에 나는 다른 때에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경험하였다.

내가 자녀들과 성취한 많은 성공적인 일들도 다른 자매들이 알려 주었던 아이디어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어떤 자매는 불경기 중에 자신이 가족을 부양

해야 했으므로 가족이 모두 채소밭을 가꾸어 식량을 조달하였으며, 함께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시간을 통하여 그녀는 자녀들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말하였다. 밤에 물몬경이나 성경, 또는 교회 역사를 읽고, 다음날 자녀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노력으로 자녀들은 복음을 사랑하게 되었고 일도 좋아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일하면서, 머리를 빗으면서, 여행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복음에 관해 이야기한다.

강화된 영성

아마 다른 단체도 나에게 자매애, 여성다움, 재능, 학습의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 즉 새로운 영적인 열의를 불어넣어 준 상호부조회와 비교될 수가 없다.

내가 처음 대학에 입학하였을 때, 나는 집을 떠나 살게 되었다. 그런데 상호부조회를 일요일 오전에 갖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상호부조회는 다만 나이가 지긋한 자매들만 참석하는 곳이라는 생각에 내키지 않는 기분으로 상호부조회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내가 주말을 고향 집에서 지낼 때 가장 아쉬웠던 것은 상호부조회에 참석함으로써 얻게 되는 영적인 힘이었다. 나는 진실로 금식하고 기도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배웠고 특별히 공과를 준비할 때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을 배웠다.

이제 나는 내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고 느낄 때 지난 날들을 기억하고 내가 노력하면 다시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받는다. 상

호부조회는 영감을 통하여 조직되고 계획되며 수행된다. 매주 참석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생활하고 그의 도움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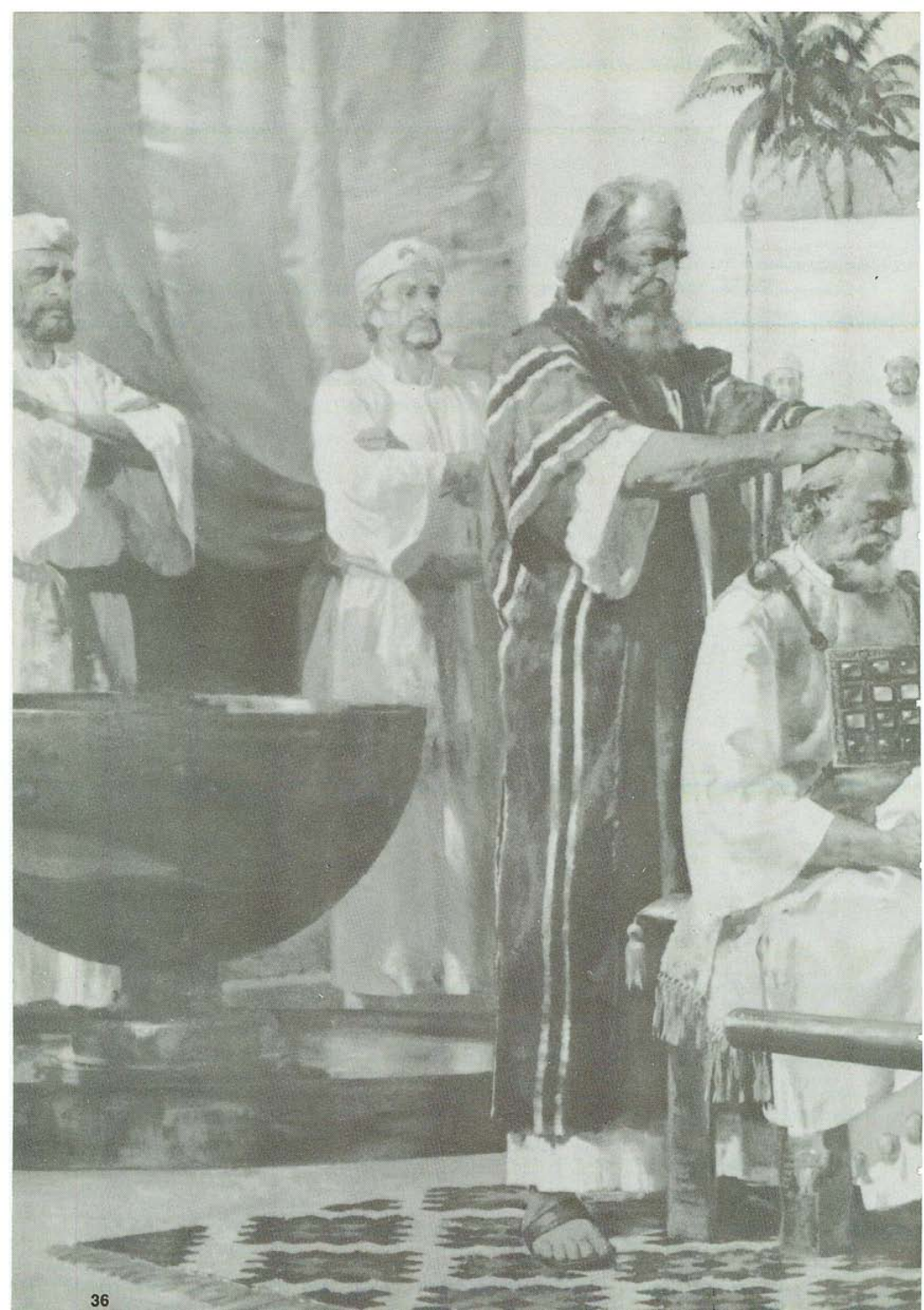
여러 해 전 친구와 나누었던 대화가 내가 상호부조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학교에서 가르치던 일을 막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어떤 친구가 “직장을 다시 갖지 않는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받은 교육을 써버리는 것이 되지 않겠니?”라고 물었다.

나의 대답은 그녀에게 별로 확신을 주지 못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잘 알아. 너는 음식을 만들거나 바느질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우리들처럼 아기 돌보는 일도 싫어하잖니? 너는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해. 한두 해만 집에 틀어 박혀 있으면 곧 싫증이 날거야.”

“글쎄, 그렇지만 상호부조회가 있잖아.” 나는 철회하면서 대답하였다.

“일주일에 한 번 뽀인 모임이 집 밖에서의 너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 그녀는 반대했다.

그 이후로 나는 두 사람이 모두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정에서 만족을 얻기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다. 그러나 자매애를 증진시키고, 봉사하고 싶은 욕망을 복돋아 주며, 재능을 개발시키고 여성의 본분을 일깨워 주고, 배우고자 하는 욕망을 부채질하고, 영성을 키워 주는 조직에 소속됨으로써 나는 행복해졌다. 사실 상호부조회 덕분에 나는 항상 노래를 부르며 지내게 되었다. *



아론

빅터 엘 루드로

청소년들은
아론의 모범을
공부함으로써
그들이
추구해야 할
신권을 가진
종의 모습을
배울 수 있다.

대부분의 어린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고대에 아론과 그의 동생 모세가 신권을 행사하는 데 위대한 모범을 보였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에서 구해 내고 모세의 경륜의 시대를 이룩함으로써 아론의 제사장의 기능이 동생 모세의 예언자적 경험에 의하여 가려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론은 하나님의 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했으므로 주님의 중요한 신권의 하나가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나는 25년 전에 아론 신권을 받았다. 그 이후로 나는 아론이 훌륭하게 실시하였던 신권 지도의 원리를 배우고 적용하려 노력하여 왔다. 그 중 내가 특별히 유의해 온 열 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을 받아들임. 소년 시절에 아론은 그의 동생 모세가 기적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가기 전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호화롭게 자란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당시 아론은 하나님과 히브리인 종교를 쉽게 배반할 수 있는 노예의 신분으로 남아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틀림없이 주님과 가까이 있었을 것이다. 그 시절 그의 신앙에 대해선 기록된 것이 없다. 그러나 그가 80세가 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출 4:27) 그는 순종했다. 하나님을 믿는 아론의 신앙은 그와 모세가 당면할 어려움으로부터 그를 더욱 강하게 해주었다.

이상하게도 첫번째 시련은 자신의 백성들에게로부터 가해졌다. 모세는 주님에게 그가 백성들을 이끌어 내는 자임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줄 기적과 증거를 받았다.(출 4:1-9 참조) 이러한 증

거와 아론의 간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형제가 그들을 대표하여 바로에게 맞설 자들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출 4:29-31 참조) 그러나 노한 바로가 백성들에게 노동을 가중시키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 형제로부터 등을 돌렸다. 모세는 여호와 주님께 기도도 자신의 아픈 마음과 회의적인 느낌에 대해 말하였다.(출 5:20-23 참조) 그러나 아론이나 모세의 신앙이 흔들렸다는 증거는 없다.

나에게 있었던 신앙의 시련이 기억난다. 나는 인디아나주 블루밍톤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그곳에서 비회원 친구들이 줄곧 나의 신앙에 대하여 비난하였다. 그럴 때마다 나의 유일한 방어책은 모세와 아론이 한 것과 같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뿐이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존재하신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또한 하나님이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나누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과 부모님의 간증이 실제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러한 열렬한 투쟁의 결과로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되었다.

2. 인격을 쌓음. 아론의 생애에서 한 가지 인상적인 면은 그가 동생을 예언자로서 완전히 받아들인 점이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한 번도 노예가 된 적이 없었으며 사십년 동안 애굽 밖에서 살았다. 아론은 나이로나 경험으로나 히브리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이끄는 일을 모세보다 자신이 더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모세를 처음부터 주님의 예언자로 받

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은 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기한 것에 대하여 주님으로부터 견책을 당하였다. (민 12장 참조) 소인이라면 분노와 질투로 예언자에게 대항하였을 것이나 그는 오히려 회개하였다.

아론은 이 점에 있어서 많은 유혹을 받았다. 그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모세라 하는 선전자가 왕의 딸에 의하여 양육될 것이라고 하신 예언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요셉 스미스의 영감역창 50 : 29 참조) 아론에 대한 예언적인 약속이나 심오한 축복사의 축복에 대해서는 기록된 것이 없다. 그는 참으로 무관심과 증오로 말미암아 그의 발전이 저해되기 쉬운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훌륭한 증으로서 주님을 대표하게 될 때까지 자신의 생활과 성품을 향상시켰다.

나는 내가 프로보 제 9 와드의 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 그보다는 훨씬 작은 일이었지만 그와 같은 착잡한 감정을 느꼈던 것을 기억한다. 정원회 회장단에 공석이 생기게 되자 나는 그 직분을 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부름을 받았다. 나는 그의 합당성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준비를 갖추었는지, 내가 합당한지를 나 자신에게 물어 보았다. 나는 항상 나의 생활을 질서있게 하고, 나 자신을 향상시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부름에도 합당하게 준비하겠다고 결심하였다.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잘 파악해서 그 약점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전에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 내야

한다. 아론이 그 모범을 보였다.

3. 권능을 의롭게 사용함. 신권 소유자는 금지와 겸손의 균형을 이루는 데 이종의 도전을 받게 된다. 신권 소유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금지와 약점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겸손함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권 소유자는 더 높은 직분을 얻겠다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신권의 권능을 사용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도 아론은 모범을 보였다. 그가 한번이라도 동생의 예언자의 직분을 탐냈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권능이 주어졌을 때 그는 약하지도 소극적이지도 않았다. 모세를 대신해서 바로에게 말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순종하였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여 자신의 부름만을 수행하였다. (출 4 : 30 ; 5 : 1-4 ; 6 : 13 ; 7 : 1-2, 6-10, 19-20 ; 8 : 5-6, 16-17 ; 10 : 3 ; 11 : 10 참조)

아론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 지도력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였다.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아론은 금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조르는 무리를 통솔하지 못하였다. (출 24 : 14 ; 32 : 19-24 참조) 그러나 모세가 꾸짖자 아론과 레위 족속은 주님을 따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진영을 일소하였다. (출 32 : 26-29 참조) 그후 아론은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다시는 그들이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시내산에서의 아론의 경험은 내가 캘리포니아 포드 오르드의 분대장이었을 때 했던 경험과 비슷하다.

우리 소대가 특별 검열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병영을 청소한 뒤 분대원

들은 자신들의 무기를 소제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 소제의 상사가 분대장네 명을 병영으로 부르더니 아직 완성되지 못한 몇 가지 일을 지적하였다. 그는 나에게 분대원 약간 명을 불러들여 그 일을 시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창문을 열고 나의 분대원 세 명을 불러 캐링튼 상사님이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일을 더 하라고 하신다!”라고 말하였다.

내가 돌아서자 캐링튼 상사는 “분대원에게 무어라고 말하였나?”라고 물었다.

“상사님께서서는 대원들이 들어와서 일을 더 하라고 하신다고 말하였읍니다.”라고 대답했더니 “아니야, 나는 자네에게 자네의 부하를 불러 일을 시키라고 말하였네. 자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지.” 캐링튼 상사의 말에서 “자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지?”라는 말은 지금 당장 팔굽혀 펴기 100번을 하라는 명령이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난처하였으나 몇 시간 후 나는 상사가 내게 가르쳐 준 교훈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분대장이었으므로 대원들에게 명령하여 일을 시킬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소대원에게 일을 시키는 데 캐링튼 상사의 이름과 권리를 이용하였던 것이었다.

교리와 성약 58편 26-28절에서 우리는 범사에 일일이 명령을 받아서는 안되며 “자신의 자유의사로서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우리는 우리를 돕거나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른 사람의 힘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와 자신의 용기로써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여

야 한다.

4. 재능을 발전시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왕에게 말하라는 주님의 부름을 수행하며, 그의 관리 직분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재능과 영적인 은사를 발전시켰다. 예를 들면 그는 계시를 받는 방법을 배웠으며(출 12:1; 레 10:8; 11:1; 13:1; 민 18:1 참조) 결국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출 19:24; 24:9-10 참조) 그가 자신의 재능을 잘 발전시킨 것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은사는 그의 이름을 따서 “아론의 은사”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이 은사를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약속하였다. (교성 8:6-11 참조)

모세가 주님의 예언자 또는 대변인인 것처럼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었다. 모세와 주님의 대변인으로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을 가르칠 책임을 졌다. (레 10:11; 신 33:10 참조) 모세와 에녹을 포함한 많은 예언자들이 그들의 부름을 잘 이해하였지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들의 능력에 대하여 염려하였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아론이 가진 말하는 재능은 그가 이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5. 어려움을 참고 견뎌. 아론은 성역을 베푸는 동안 여러 번 실망을 하기도 했다. 그는 금송아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증거하였고, 후에는 전염병과 하늘에서 내린 형벌로 수천 명이 죽는 것도 보았고 (민 11, 14, 16장 참조)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비극과 실망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의 네

아들 중 두 아들이 여호와 주님으로부터 내려진 불로 죽었으며 (레 10 : 1-2 참조), 그의 누이는 문둥병에 걸렸다. (민 12 : 10 참조) 이러한 역경을 통하여 그는 “잠잠하” (레 10 : 3 참조)였다. 그는 자신의 악함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다. (민 12 : 11 참조)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가 지나치게 권능을 내세운다고 그를 비난했다. (민 16 : 3 참조) 그와 모세는 여호와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리고 물이 나오게 할 때 주님께서 주신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징계받았다. (민 20 : 12-20 참조) 아론의 생애는 좌절로 가득 찬 생애였으며 즉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아론은 약해지거나 주님을 거스려 돌아서지 않고 더욱 강하여져 결국 그의 관리 직분을 완수하였다.

우리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즉시로 오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나는 독일 쾰링겐에 살던 한 훌륭한 젊은이를 기억하는데 나와 동반자는 그를 위해 기도하며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당초에 그가 침례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후에는 그 자신도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13년 후, 그의 결혼 생활에 파탄이 일자, 그는 다시 교회를 찾았다. 그는 사업상의 문제로 시카고로 왔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침례를 베푸는 큰 기쁨을 맛보았다.

6. 관리 직분을 수행함. 아론의 부름은 아론이 특별히 장막에 관계되는 일 (출 28, 39장 참조)과 여러 가지 의식을 집행함에 있어서 (레 5-7장 참조) 사소한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레위기 10장에는 아론의 네 아들 중

두 명이 관리 직분을 합당하게 수행하지 못하였던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성소의 황금 제단 위에 이상한 향을 태웠으며, 그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였다. 그 일이 있은 후, 주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과 그 후의 레위 제사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번제를 드릴 때나 가르칠 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명하신 것으로 보아, 분명히 그들이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다. (8-11절 참조)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은 애도해서도 안되고 장례식에 참석해서도 안된다는 명을 받았다. (6, 7절 참조) 또한 그들은 단 위에 드리고 남은 소제를 먹으라는 명을 받았다. (12-15절 참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같은 엄한 명을 따랐다.

오늘날 아론 신권 직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성찬 축복과 전달, 침례와 기타 다른 의식들의 절차를 정확하게 배운다.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그리고 후에 아론 신권 프로그램의 지도자로서 나는 이 모든 거룩한 의식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비록 우리가 왜 그같은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지도자들이 미리 말해주었던 바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7. 봉사함. 아론은 신권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 사십년 동안 그의 시간과 재능과 정력을 바쳤다. 그가 지시하였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성막에서의 경배 (레 24 : 5-9 ; 출 30 : 7-8, 30 참조)

나. 특수한 경우 심판함 (레 13, 14장 참조)

다. 성막 안의 물건, 특별히 언약케를 간수함 (민 4 : 5-20 참조)

- ㄷ. 셋째 또는 침례 (출 40 : 12 ; 교성 26-27 참조)
- ㄹ. 희생제와 번제 (레 6 : 12 ; 9 : 15-22 ; 출 29 : 38-44 참조)
- ㄹ. 율법과 성약을 가르침 (레 10 : 11 신 33 : 10)
- ㅅ. 성막의 아들을 포함하여 성막을 돌봄 (민 3 : 5-13, 23-27)
- ㅇ. 전쟁이나 또는 종교적인 축제를 위하여 온 나팔을 부는 (민 10 : 1-8 참조)

이상의 성구를 읽어 보면 아론이 여러 해 동안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가 과중한 임무, 너무 많은 부름, 다른 일들을 즐겨야 할 시간의 여유가 없음을 불평하였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죽을 때까지 왕국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였다.

내가 프로보 제13와드에서 열 일곱 명 교사들의 고문으로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데 주저했던 경험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한이 없다. 사실 내가 대가족을 거느린 가정으로서 새로운 직장과 가정에서 할 일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였으나 이들 젊은이들에게 나의 임무를 상기시켜야 했다. 내가 그들을 알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문제점과 목표는 나 자신의 것이 되었다. 점차 나는 책임감에서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 봉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론은 헌납과 희생의 훌륭한 체제를 감독하였으며,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기회를 많이 갖고 있다. 다른 책임이나, 나이 문제, 일상의 생활의 잡다한 문제 등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주님을 돕는 일에서 우리를 떼어 놓는 구실이 될 수 없다.

8. 지도자를 도움. 모세와 아론은 경전 여러 곳에서 함께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들은 거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구약전서의 앞부분이 모세가 기록했음을 상고할 때 우리는 아론이 모세를 충실하게 보필해 주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당시 경문의 시대에 지도자이며 주님의 예언자인 모세는 아론의 존재에 의해서 만이 아니라 그의 의식적인 봉사로 인하여 진실로 지지되고 있다고 느꼈음에 틀림없다. 아론의 근면한 행위로 모든 종교적인 프로그램이 완성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행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바른 종교적 환경을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근심과 염려를 많이 덜어 주어 그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한 제사는 제사 정원회 회장인 감독을 도움으로써 이와 비슷한 경험을 맛보게 된다. 제사가 제사로서의 관리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때, 감독은 다른 분야에 노력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된다. 보좌와 다른 사람들도 감독의 근심을 덜어 주어 감독이 와드의 영적인 고문이요, "이스라엘의 판사"로서 보다 잘 봉사하도록 해줄 수 있다.

9. 따르는 자들을 가르침. 아론 신권의 가장 큰 책임은 가르치고, 경고하며 훈계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모든 사람을 나아오게 하는 것이다. (레 10 : 11 ; 신 33 : 10 ; 교성 20 : 46-59) 아론은 제사장과 레위 족속에게 그들의 임무를 가르쳤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도록 준비시켰다. 아론

이 죽자 새로운 지도력의 교체는 순조로웠으며, 이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잘 준비시켜 제사장의 임무를 계승시켰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내가 학생 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 나는 대부분의 와드 회원에게 그들의 부름과 책임에 관해 훈련시켜야 했다. 대학 1학년생들은 봉사하려는 열의가 크고 적극적이지만 때로는 와드의 부름을 수행하기에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다. 나의 보좌들은 모두 숙련된 지도자였다. 그들은 와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와드 회원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훌륭한 유대를 갖도록 훈련을 시켜 나는 그들과 주님과과의 관계에만 관심을 쏟을 수 있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의 팀으로서 모든 와드 회원에게 그들의 세상적인 책임을 가르치는 데 힘써 왔다.

주님의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교리와 기독교인 생활의 기본적인 가치를 가르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세속화되고 가족의 분열이 만연된 오늘날 우리는 가치있는 일에 충실하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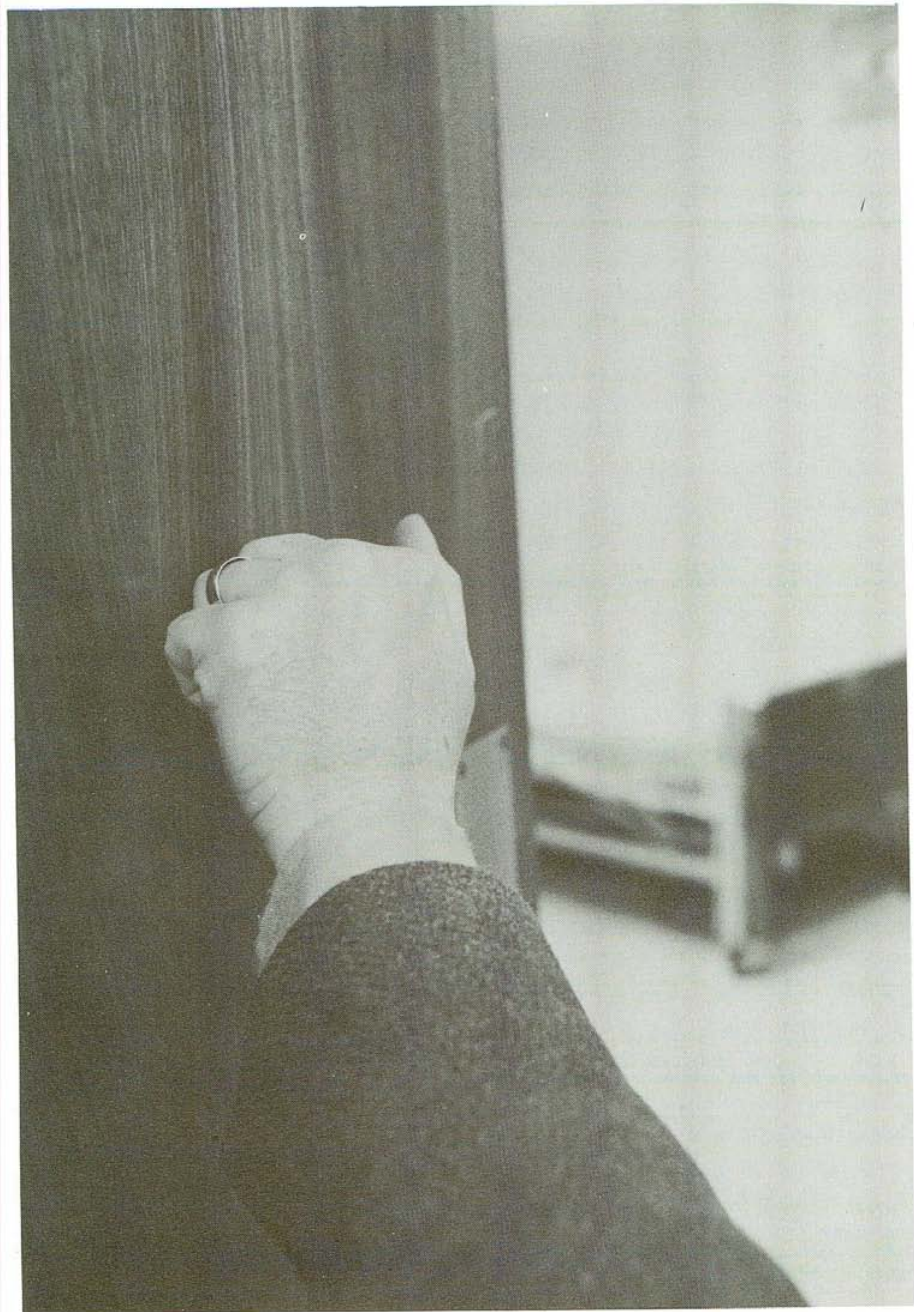
10. 향상을 진단함. 주님은 아론의 생전이나 사후에나 모두 아론의 헌신적인 봉사를 인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기적적으로 싹이 트게 하시고(민 17:5-9 참조) 하늘에서 내린 불로 그의 희생 제물을 불태워 주심으로써(레 9:22-24 참조), 아론의 신권 권능을 확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신권을 주셨으며(레 8:4-13; 교성 132:59 참조), 그의 의로운 후손이 영원토록 그

내가
신권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나와 가족도
그와 같이 행할 것입니다.

신권을 소유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출 29:9; 민 18:1; 대상 23:13; 교성 68:16-21; 교성 84:27 참조) 후에 주님은 그의 신권의 반차의 하나를 아론의 이름을 따서 붙였으나(교성 107:1-20), 이는 아론의 헌신적인 봉사에 대한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는 주님께 대한 자신의 봉사의 정도를 측정하기는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영이 나를 지시하며 인도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린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봉사를 평가하려 한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신권을 의롭게 행사했느냐는 것은 나의 가족을 통해 환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내가 신권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나와 가족도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다. 아론은 신권을 어떻게 훌륭하게 존중할 수 있는가를 보여 주었다. 그는 후대 신권 소유자들과 그 가족들의 모범으로써 봉사했다. 우리는 아론처럼 효율적이고 진실된 봉사를 해야 할 것이다.*

빅터 엘 루드로 형제, 현재 브리감 영 대학교 고대 경전과 부교수이며, 유타주 프로보 와드에서 집사 정원회 고문과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하고 있다.



성탄절 선물

레인 에이치 디어든

세 명의 인턴이 이미 나에게 내일—성탄절 전날—병원에서 일시 퇴원해서 성탄절을 보내고 다시 입원해도 될 만큼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나는 과장인 서먼 박사가 정규 회진을 돌때 이 기쁜 소식의 최종 확인을 해줄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결국 그는 나타났고 나의 병상 옆에 섰다. 그의 회진은 틀에 박힌 것이었다. 사실 너무나 형식적인 것이었다.

“아주 상태가 좋군요. 아주 좋아요.” 그는 나를 확신시키고는 병실을 나가려 했다. 그러나 성탄절 의출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제가 내일부터 며칠간 의출을 해도 되지요?”라고 물었다.

그가 놀라움을 표시할 때는 그의 겹 빛 눈썹을 약간 이마 쪽으로 치켜 올렸다. 그는 천천히 “안됐소, 젊은이. 적어도 앞으로 두 주간은 아무 데도 가지 못해요.”라고 대답했다.

그의 음성은 친절하였으나 단호하고도 분명하였다. 그가 병실을 떠날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누워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붙들고 있던 어떤 것이 사라져 버리는 느낌이었다. 단 하나의 소망이 이제 사라져 버린 것이다.

불공평했다. 정말 불공평한 일이다! 내가 선교 사업을 한 지 일년이 넘었을 때 이러한 일이 생겼다. 나는 나의 부름을 기쁘게 수행하고 있었다. 뉴욕시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은 도전해 볼만한 흥미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최근

에는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의 수고가 결실을 맺는 축복을 받은 것이었다. 나는 건강의 축복도 받았다. 적어도 2주일 전 갑자기 오른 팔이 잠시 마비되고 약 두 시간 동안 말을 못하게 될 때까지 나는 건강했다.

아무도 나에게 왜 그러한 증상이 나타났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브론스에 있는 이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게 된 것이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간질, 발작, 종양 등에 관하여 소근 거리는 소리를 엿들었다. 나는 결론을 얻지 못한 수십 가지의 검사로 지쳐 버렸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보다 더 심하게 아팠다. 가르쳐야 할 구도자가 많이 있는 이때에 이렇게 병원에서 허송 세월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 부당한 일이었다. 애당초 그 야릇한 고통이 일어난 것은 부당한 일이었다.

나는 매일 밤 유타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건강하니 아무 염려 말라고 안심시켰다. 어머니는 비행기를 타고 내게로 오셔서 나와 함께 제시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나는 우리 가정 형편이 그렇게 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설사 어머니가 오시더라도 내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전화로 나의 이상한 증세에 대하여 가볍게 말하였고 태연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여 가족이 나에게 대하여 크게 염려하지 않게 하였다.

신경과로 유명한 브론스에 있는 이 작은 병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황량하고 활기없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단 하루 밤을 지냈을 때 나는 그것을 실감하였다. 하루 이틀이 주일로 바뀌면서 나는 성탄절 휴일에 나갈 수 있다는 희망

을 갖고 고통을 견디었던 것이다. 성탄절의 기대와 활동에 대한 생각은 지루함과 불편함을 경감시켜 주었다.

“적어도 앞으로 두 주간은 아무 데도 가지 못해요.” 서만 박사의 선언이 내 귀에서 뿜뿜거렸고 그것은 향수병을 앓게 했고, 최후의 선고라는 느낌을 가져다 주었다. 어린 시절에는 성탄절에 대해서 여러 달 전부터 꿈을 꾸었다. 청년이 되었을 때 나는 어린 시절의 즐거움은 이제 친구와 가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감사에 비하면 겨우 일부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적어도 15분 가량을 병상에서 꼼짝 않고 누워 있다가 라디오를 켰다. 병원으로 온 후, 라디오는 외로운 병실에서의 유일한 낙이요, 기분 전환의 도구였다. 그러나 라디오 소리도 나의 우울한 마음을 달래 주지는 못하였다. 실망은 분개와 화로 변하였다. 나는 완전히 비참해졌다.

그래도 복도와 근처에 있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라디오 소리가 나온 것 같아 라디오를 계속 들었다. 방송국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방송하고 있었다. 즐거운 음성이 온 세상에 기쁨을 선포하였다. 가수들의 노래도 “명절에는 가정처럼 좋은 곳이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상기시켜 주고 있었다.

나는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나는 집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선교사들이나 뉴욕에 있는 회원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는 처지였다. 나에게서는 차라리 금년에는 성탄절이 없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12월 23일이 지나고 12월 24일이 왔

다. 성탄절 전야였다. 병원은 잠시 떠들썩하더니 조용해졌다. 많은 환자들이 성탄절을 보내러 집에 다녀오도록 허락을 받았으나 나는 그렇지 못했다. 나는 외톨이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나는 우울하게 침대에 누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노래를 경멸하였고, 그날 밤이 빨리 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8시쯤 되자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최근에 내가 가르쳐 개종한 에드코프 형제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의 두 팔은 선물 꾸러미로 가득 찼고, 얼굴에는 미소가 넘쳤다. 그는 명랑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고는 꾸러미를 내려놓고, 나에게 다정하게 악수를 청했다.

오늘 그가 가족과 떨어져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오늘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단순한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니라 특별한 가족의 시간인 하누카였다. 에드가 기독교 즉 회복된 복음을 가진 교회로 개종하여서 가족 사이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는 가족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려 하고 있었다.

에드의 얼굴은 그날 저녁 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줄곧 빛이 났다. 온화함과 열성 때문에 24세의 나이에 비해 그는 더 어려 보였다. 그는 교회에서의 자신의 일, 복음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친구들과 가족에 대한 그의 관심과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줄곧 미소를 잃지 않았다. 여러 시간 동안 우리는 이야기하고, 음악을 듣고, 그가 가져 온 선물을 열어 보았다. 그와 다른 친구들로부터의 선

물들이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지하철을 타고 이 추운 날 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나는 우울한 병실을 돌아보았다. 명절날 신문이 쓰레기통에서 튀어나와 있었고, 외로운 의자 위에는 선물들이 쌓여 있었으며, 침대 양 옆에는 흰색과 붉은색의 지팡이 사탕이 일렬로 매달려 있었다. 그때 나는 병실에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깨달았다. 나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다. 나의 행복과 빛이 나의 영혼을 녹여 주었다. 나는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풍족한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때에 순간적인 기분만을 생각했었던 것이었다.

이번이 에드에게는 첫번째 성탄절 전야였는데 그는 그것을 나에게 주었던 것이다.

그는 진실함과 사랑이 담긴 관심으로 참된 기독교 정신을 실현했다. 그는 나를 위하여 희생하였다. 그는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나도 잊고 있었던 것이었다. 내가 놓쳤다고 안타까와 한 것은 사실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위적이고 알팍한 피상의 것이었다.

몇 시간 동안 나는 어둠 속에 누워 성탄절 노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캐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몇 천년 전의 바다 건너에 있는 땅의 밤을 생각하였다. 나는 그날 밤에 태어난 어린 아기로 인해 기뻐고 그날의 정신으로 희열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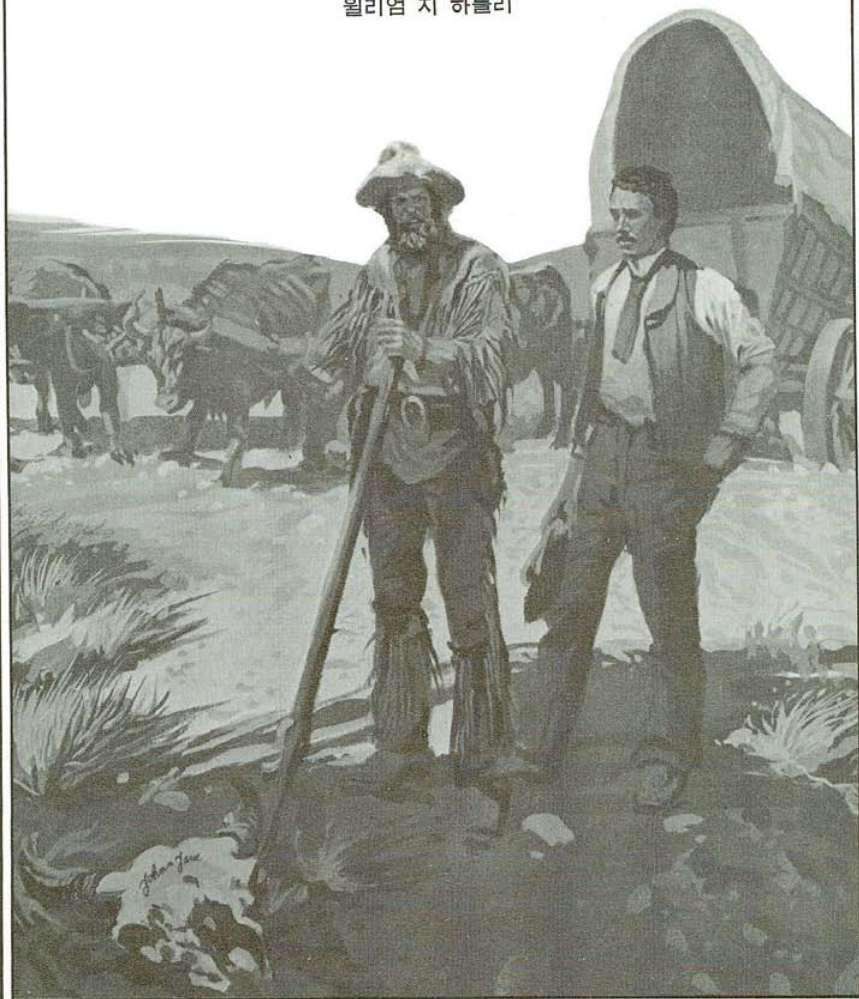
나는 나의 형제로부터 받은 성탄절 선물에 감사하면서 조용히 잠이 들었다.

※

어린 영국 선원의 모험

(제 2 부)

윌리엄 지 하틀리



윌리엄 우드의 십대는 영국 해군에 복무하는 동안 지나갔다. 이제 윌리엄 우드는 크리미아와 중국의 전쟁을 경험했고, 3년 동안 리트리뷰션 호를 타고 세계를 일주한 후 템스강 어구 부근인 세리섬에 정착하여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는 편히 쉬었고, 다시 친척들과 재회의 기쁨을 맛보았다. 그들 중 그가 5년 전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엘리자벳

고향에 온 지 두 주일이 지난 후, 윌리엄은 교회 지부를 찾았다. 그의 누이는 그가 단지 산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같이 따라 나섰다. 마침내 그들은 “더러운 뒤틀목의 작은 이층방”에서 모임을 갖는 쉬어니스의 물몬 집회소를 발견하였다. 윌리엄은 지부장과 낮익은 몇몇 성도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그들은 그에게 모임에서 항해 경험에 대하여 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의 기록에는 누이가 “내가 여전히 물몬임을 발견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고 적혀 있었다.

그는 80파운드의 퇴직금 이외에 돈을 더 벌기 위해 제육업자로서 직장을 얻었다. 그는 여러 해 전 그가 말일성도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던 말든의 블랙셀씨에게 다시 높은 임금을 받고 고용되었다. 윌리엄은 말든으로 돌아가 약 1년간 일을 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그는 두 가지의 목표를 향해 정진하였다. 그것은 시온으로 이주하는 것과 “반려자를 찾는 일”이었다.

1862년 이 선원은 말든의 지부장의 열 여섯 살 된 아름다운 엘리자벳 켄트리와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1853년에 교회에 가입하였고 엘리자벳은 1854년에 교회에 가입하였으며, 대장장이인 아버지는 그 다음해에 가입하였다. 켄트리 형제와 윌리엄은 같은 해에 개종하였고, 윌리엄이 해군에 입대하기 전에 말든 부근에서 함께 제사로 봉사하였었다.

윌리엄과 엘리자벳이 약혼하였을 때 그들은 순회 장로인 프란시스 엘 라이만 장로와 함께 시온으로의 이주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후에 십이사도 평의회 일원이 된 라이만 장로는 그가 당시 조직하고 있는 이주민단에 가입하라고 조언해 주었다.

두 사람은 런던에서 다른 이주민단 성도들과 합류하여 리버풀까지 여행하여 그곳에서 낡은 범선 윌리엄 램스콧트에 올랐다. 이 배는 특별히 교회 이주 대행처에서 전세를 낸 배였다. 이번 여행에서 전에 없이 많은 말일성도들이 대서양을 횡

단하게 되었는데,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지에서 800여명의 성도들이 함께 여행하였다. “성도들이 갖가지 양철 그릇들을 보파리에 꿰어 배에 올랐고, 어떤 사람들은 짬방석을 머리에 이고 타는가 하면, 온갖 종류의 도시락 가방을 메고 오르는 모습들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낚은 가구를 갖고 배에 올랐고…… 어떤 사람은 증조부모의 사진을 갖고 오르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윌리엄은 보고하였다.

윌리엄은 그렇게 많은 무리가 특별히 임명된 관리 장로들에 의하여 갑판에서 나뉘어 그토록 빨리 질서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하였다. 비물몬이 그만큼 있었다면 그렇게 질서있게 행동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것처럼 조화를 연출해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갑판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말하였다. 배는 1862년 5월 13일, 리버풀 항을 출항하였다.

와드 교사들이 각 가족에게 임명되었고, 라이만 장로는 윌리엄 엘리자벳을 포함하여 일곱 명의 이주자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지명되었다. 선원은 그들의 배급을 받아 식량을 준비하고 다른 필수품을 조달하였다. 거친 바다와 배멀미 등으로 얼룩진 여섯 주의 지루하고 느린 항해는 뉴욕의 캐슬 가든에서 끝났다. 이주민단은 건강 진단을 받고 세인트 루이스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었을 때였으므로 “우리는 여러 번 이동해 기차를 바꿔 타야 했습니다. 한 번은 급히 화물 열차에 올라타게 되었는데, 그곳은 돼지를 실고 가는 칸이었습니다. 더구나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악취에 질식될 것 같았는데 그후 여러 날 동안 냄새가 배어 빠지지 않았습니다.”

미주우리강에서 그들은 작은 증기선에 올라탔다. 배는 밤 늦게 카운슬 블러프에 도착하였으며, 사람들이 캄캄한 속에서 집을 부리느라고 혼란을 빚었다. 특히 동이 틀 무렵에 지친 여행자들은 그들의 흩어진 짐을 찾아서 교회 이주민 캠프에 모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교회 이주 전담자 조셉 영에 의하여 열 명, 오십 명, 백 명 단위로 구분 조직되었다. 퇴역 군인인 윌리엄이 수비 대장으로 임명되었다.

포장마차와 가축을 준비하고, 집을 적재하고 필요한 식량을 구입하여 꾸러야 했으며, 가축 배를 부리는 사람을 훈련시켜야 했다.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거센 바람과 어수같은 비와 번개를 동반한 무서운 폭풍우를 맞게 되었다. 가축들이 묶어 두었던 끈을 풀고는 도망하면서 많은 피해를 내었다. 벼락을 맞아 두 명의 성도들이 죽었고, 여러 사람들이 중상을 입었다. 홍수는 3미터 깊이의 골짜기를 휩쓸고 내려갔다. 수비 대장인 윌리엄은 폭풍우 중에 무너진 텐트 아래서 한 자매의 해산을 도와야 했다. 산모와 아들은 일생 동안 유타주에서 그의 친구로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수해를 복구하는 데에는 이삼 일이 걸렸으며, 급류로 떠내려 간 상자나 가방을 찾지 못한 성도들도 많았다.

가축을 다루는 윌리엄의 솜씨를 알아차린 쿠퍼 형제는 그를 고용하여 그의 가축 배를 한테로 모아 유타로 물고 가는 일을 맡겼다. 그 대가로 윌리엄과 엘리자

베스의 운임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며칠 후 그들의 고용주는 시온으로 가지 않고 그 근처에서 농장을 경작할 거라면서 그 일을 도와 줄 것을 부탁하였다. 윌리엄이 거절하자 주인은 그와 엘리자베스를 포장마차에서 내쫓았다. 이들 부부는 양식도 없이 쫓겨 난 것이다.

난처한 입장에 빠진 부부는 서부에서 그날 저녁, 다행스럽게도 마차를 타고 오는 라이만 장로와 찰스 시리치 장로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40불에 엘리자베스가 와델이라는 가족과 함께 유타까지 마차를 타고 가도록 추천해 주었다. 그리고 라이만 장로는 윌리엄에게 플로렌스로 돌아가 디 에프 스미스 화물 열차를 도울 것을 부탁하였다. 약혼녀는 그와 이별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약혼녀를 떠나 다시 돌아가야 했던 그 일이 내가 겪은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계의를 받아들여 약혼녀에게 이별의 키스를 하고는 나의 마지막 남은 전재산인 금화 반 파운드를 그녀에게 주고 사문마차에 뛰어올랐습니다. 나의 가슴은 슬픔으로 가득 찼고 머리 속에는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본 리치 형제가 내게 격려의 말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캠프에서 첫날 밤, 모든 사람이 폭소를 터뜨린 만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후 여러 해 동안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은 웃음을 자아내었다. 잠자리를 준비하던 윌리엄은 해군 작업복을 꺼내려고 그의 가방을 뒤졌다. 그러나 해군복 대신 “페이스로 장식된 여자 속옷”이 손에 잡혔다. 그의 동료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그가 잘못하여 여인의 가방을 바꿔 들고 온 것이다. 그러나 이 뱃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운이 좋은 것 같았다. 화물 작업을 하는 다른 동료들은 석달 동안 딱딱한 땅 위에서 잤지만 윌리엄은 두 마차 바퀴 사이에 매달린 해먹에서 편안하게 쉬었다. 비가 오는 날 밤에는 자신과 해먹을 돛베로 덮기만 하면 되었다.

날이 갈수록 여행은 지루해졌다. 칩니 록(현재 와이오밍주에 있음) 부근에서 가족 여러 마리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행 속도는 점점 느려졌다. 윌리엄은 유타에 가서 엘리자베스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마침내 10월 어느 토요일, 윌리엄 일행은 대 솔트레이크를 덮고 있는 아름다운 황혼과 눈앞에 펼쳐진 정방형의 도시에 놀라면서 솔트레이크시티 위의 언덕을 내려갔다. 마을 가까이 가자 근처의 통나무집에 사는 사람이 윌리엄을 부르며 손을 흔들었다. 엘리자베스를 데리고 유타주로 여행하였던 와델 자매였다. 윌리엄은 그녀에게 급히 뛰어갔다. 그러나 그의 희망은 일순간 무너져버렸다. 와델 자매는 엘리자베스가 이제는 그를 사랑하지 않으며 그 지역에 있는 일부 다처 주의자와 결혼하려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지요.”라고 그는 회고한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이 젊은이는 무리와 함께 계곡으로 계속 가다가 다시 그날 밤 와델씨 댁으로 돌아갔다. 와델 자매는 윌리엄에게 자기의 딸과 결혼할 것을 권하였지만 그는 관심이 없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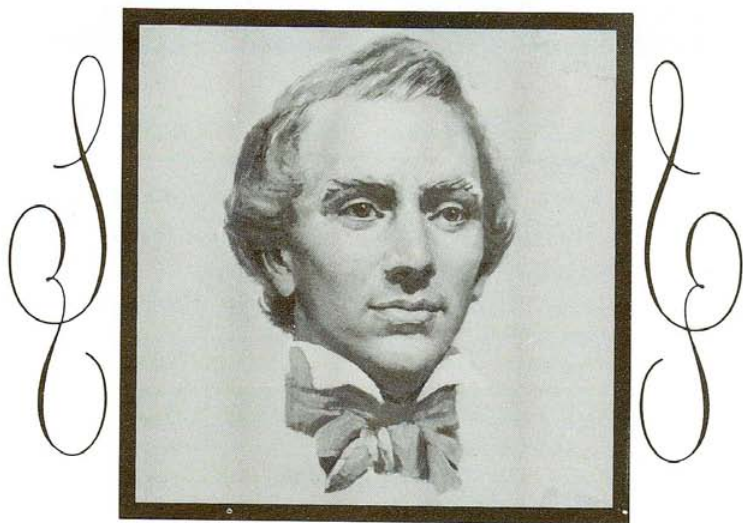
다. “나는 젊은 시절의 사랑을 찾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말든에서 온 친구들이 캐터빌에 살고 있어서 그 다음 주 초에 윌리엄은 19킬로미터를 등산하여 그들을 찾아갔다. 그는 밤에 그곳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다행히도 내 마음의 여인이 집에서 만든 긴 의자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옷은 누더기였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잠이 깬 때 그녀의 기쁨은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와델 자매가 자기를 그녀의 아들과 혼인시키려 하였으며 일이 성사되지 않자 그 어머니는 그녀를 내쫓았으며 엘리자베스의 차상 40불을 모두 갚을 때까지 그녀의 모든 옷가지와 침구를 가져가 버렸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해군 예비군을 와델가의 딸과 결혼시키려고 엘리자베스가 윌리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꾸민 것이었다. 윌리엄은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가 스프링빌에 있는 화물 작업소에서 석달간의 임금을 받았다. 그는 솔트레이크까지 다시 걸어와서 40불의 빚을 청산한 다음 그와 엘리자베스의 소지품을 받아 센터빌로 돌아갔다. 두 주일 후 두 남녀는 결혼하였다. 젊은 부부는 열심히 일을 하여 아담한 벽돌집을 마련했고 솔트레이크에서 시작한 정육업이 번성하여 1867년에는 엘리자베스의 가족이 이주할 수 있는 자금을 대줄 수 있었다.

윌리엄은 다시 1880년, 번성해 가고 있는 정육 사업과 가족을 떠나 그의 고향으로 북음 선교 사업을 떠났다. 선교 사업의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 그는 이렇게 보고하였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에게 북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나의 친족 가운데 아무도 순종하는 사람은 없었으나, 그들은 교리를 논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으며, 오늘날 그들은 나를 27년 전에 평가했던 내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당시에 몇몇 장로들이 그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으므로 친척들은 모두 나에게 매우 친절히 대해 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같이 되었음을 압니다.”

그가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지 6년 후 그의 사랑하는 엘리자베스는 42세의 나이에 13번째 아기를 낳았으나 며칠 안가서 산모와 아기는 모두 사망하였다. 후에 윌리엄은 재혼하였으며 그와 그의 가족은 캐나다에서 명성을 얻어 우드라는 이름의 목장과 정육 포장업에 관여하였다. 윌리엄의 아들 에드워드 제이는 여러 해 동안 앨버타의 신전장과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였다.

윌리엄은 죽기 전에 그의 파란 많은 일대기를 기록하였다. 그는 개종자, 선원, 개척자,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자신의 행적이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들이 북음을 배웠던 곳을 떠나야 한다면... 부도덕으로 인도하게 될 유혹에 결코 굴하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서 북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았거나 전쟁의 와중에 싸여 있거나.....항상 영원하신 아버지께 조용히 기도할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



예언자의 성탄절



12월은 구세주의 탄생의 달로 축하하고 있으나, 12월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태어난 달이기도 하다. 그는 1805년 12월 23일에 태어났다. 요셉 스미스의 일지는 그가 교회의 예언자요 대관장이 된 후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1835년 성탄절이어서 나는 하루 종일 가족과 함께 지냈다. 참으로 오랜만에 가져 본 만큼스러운 특권이였다.

1838년 형 돈 칼로스와 사촌 조지 에이 스미스가(켄터키와 테네시의 선교 지역으로부터) 돌아왔다. 그들은 2415킬로미터.....1450킬로미터를 도보로 여행하였고, 나머지는 증기선과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하였다. 그들은 몇몇 지부를 방문하였다. 그들이 집 근처에 왔을 때 폭도들에게 발각되어 이틀 동안 160킬로미터나 여행해야 했다. 먹을 식량도 없었고 이틀 밤 동안 동사의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였다.

1841년 성탄절이어서 브리감 영, 히버시 킴블, 울슨 프랫, 윌포드 우드럽, 존 테일러 그리고 아내들과 윌라드 리차즈와 하이람 스미스의 집에서 저녁을 보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킴블씨는 십이사도 각 사람에게 그가 나부에서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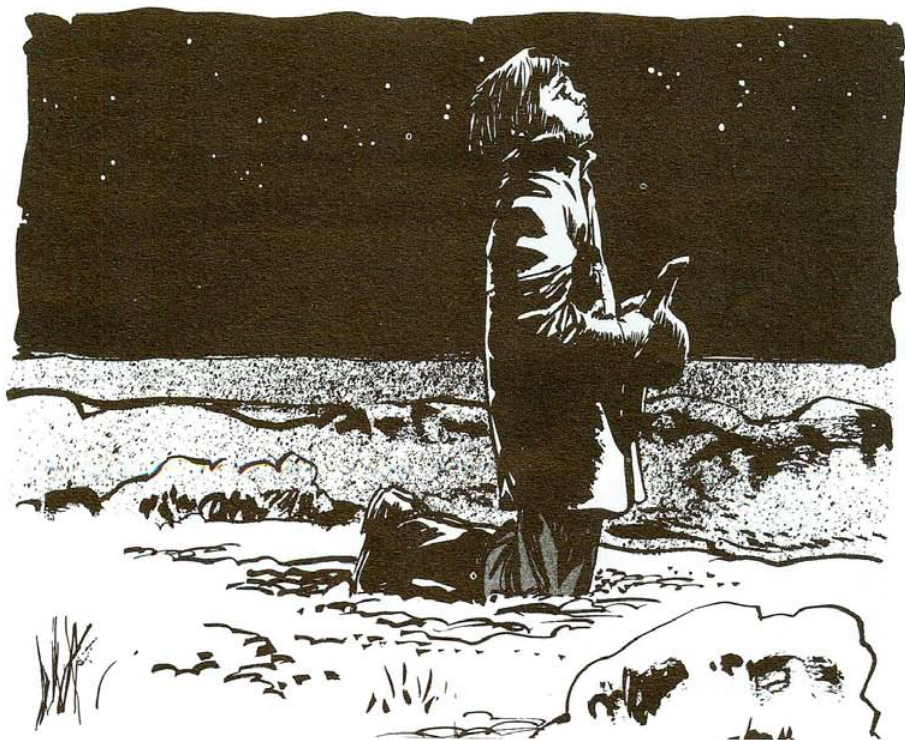
1843년 나는 새벽 1시경에 영국 자매와 그 가족이 부르는 “인간들이여 잠을 깨어 천사들의 노래 들으라”는 등의 노래 소리에 잠을 깬다. 그들의 찬송 소리는 나의 영혼을 기쁨으로 충족시켜 주었다. 나의 가족과 우리 집에 묵고 있는 손님들도 모두 이 사랑의 노래 소리에 잠을 깬으며, 나는 그들이 방문해 준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였다..... 두 시에 약 오십 쌍의 부부가 우리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였다. *

성탄절을 위한



양고추냉이

테드 웨일



1846년 나부에서의 일이다. 아빠는 부근에서 양고추냉이를 가장 잘 재배하는 사람이었다. 아무리 트집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실에

“제발
저의 아빠를
지켜 주세요
우리가 다시
곧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엄마를 축복해 주세요.
엄마가 매일매일
쇠약해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서부까지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대하여는 인정하는 바였다. 양고추냉이의 향기를 맡으면 언제나 아빠와 일터노이에 있었던 옛집이 생각난다.

총성이 시작되고 우리 집 창고에 불이 붙었을 때 아빠는 가족을 모두 불렀다. 침착하고 확신있는 어조로 아빠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우리 뒤에서 타오르는 불빛은 우리의 피난 길을 비춰 주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다른 많은 성도들과 함께 등에 짐을 지고 걸기 시작하였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아이오와의 카운슬 블러프에 도착하였을 때 우리는 몹시 지쳐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충만해 있었다. 그러나 변변치 못한 식사 때문에 병이 든 사람들이 많았다.

아빠는 물론 대대에 가입하도록 부름을 받아, 출과 흥겨운 시간이 계속되었던 기도의 밤을 보낸 후, 다른 남자들과 함께 행진하여 떠났다.

그후, 매우 건디기 어려운 나날이 계속되었다. 어머니, 어린 에이미, 루스, 그리고 나는 몇몇 훌륭한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미주우리강을 건너 네브래스카 윈터 쿼터즈까지 가게 되었다. 우리는 더러운 마루와 초가 지붕이 있는 집으로 이사하였다. 고향에 있던 아름다운 흰 농가와는 너무도 다른 집이었다.

형편없는 식량, 오랫동안의 힘든 노동, 특히 아빠의 부재로 인해 우리는 낙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엄마가 지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주면 우리는 서로 빙긋이 웃으며 “봄이 오면 서부로 가자.”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아빠가 좋아하시는 성구를 읽기 시작하고, 우리는 찬송을 불렀다.

어느 날 내가 사냥을 나갔을 때였다. 오래되어 버려진 요새의 모퉁이를 돌아 산길을 따라가다가 나는 잡초 무더기에 눈길이었다. 나는 멈추어 서서 허리를 구부려 커다란 양고추냉이를 뽑아 올렸다. 뿌리를 비틀어 보았더니 신선한 향내가 코를 찔렀다. 멀리 계신 아빠 생각을 하면서 나는 터지는 울음을 참았다. “지긋지긋한 양고추냉이!”라고 나는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제발 저의 아빠를 지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곧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엄마를 축복해 주세요. 엄마가 매일매일 쇠약해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서부까지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나는 짙어질 수 있는 만큼 양고추냉이를 뽑아서 집으로 가지고 갔다.

어머니는 독혈증으로 앓고 있는 이웃 집 아주머니를 돕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먼저 집에 가서 아빠가 보여 주셨던 대로 양고추냉이 뿌리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었다.

엄마는 집안을 들어서며 친숙했던 향기를 맡고는 얼굴이 빛났다. 어머니는 잠시 아빠가 집에 오셨기를 기대하면서 집안을 둘러보셨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는 침대에 쓰러져 흐느끼셨다.

그날 밤 우리는 양고추냉이를 먹지 않았다. 아빠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외로움만을 더해 주었을 뿐이다. 저녁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엄마가 눈물을 흘치실 때 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머니께서는 양고추냉이를 모두 향아리 속에

넣고 봉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아빠가 오실 때까지 보관하기로 하였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와 매서운 바람이 강 아래로 불었다. 통나무 틈 사이로 불어 닥치는 눈발은 너무 강해서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다. 각종 질병이 윈터 쿼터즈를 휩쓸었다. 봄이 되었을 때 언덕에는 육백 여 개의 새로운 무덤이 생겼다.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었다.

우리는 사냥으로 잡은 들짐승과 마른 열매를 먹으며 생계를 유지했다. 또한 다른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계란, 우유, 밀 등도 나누어 먹었다. 우리가 윈터 쿼터즈에 도착한 때는 계절적으로 딱 늦은 때였기 때문에 채소가 없었다.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나,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와 독혈증에 걸린 이유는 야채 섭취의 부족 때문이었다.

눈이 쌓이고 날렸다. 기온은 영하 18도 이하로 떨어졌다. 낮 동안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기운을 내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질병으로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우리는 모두 열심히 기도했다. 강한 영으로 “……모든 것 잘되리” 노래를 부를 때는 정말 모든 일이 잘 될 것임을 알았다.

밤은 지내기가 더 어려웠다. 어머니와 누이들과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후, 침대에서 서로 바짝 붙어 잤다. 밤마다 나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를 들으면서 짙단 요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봄에 서부로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다.

가을이 지난 후부터 사람들은 마치

성탄절이 고난의 상징적인 종지부라도 된 듯이 성탄절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성탄절이 지나면, 모든 일이 잘 될거야!” 모두들 그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성탄절을 하루 이틀 앞두고 있을 때, 어머니는 몹시 편찮으셔서 일어날 수조차도 없었다.

전에 어머니는 우리가 “정식” 성탄절 만찬을 가질 수 있도록 식량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셨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는 음식을 요리할 수 없을까봐 걱정하셨다.

나는 기도를 하면서도 점점 낙담이 되었다. 우리는 여러 달 동안 아빠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많은 친구들이 아팠으며, 언덕에 있는 무덤의 수는 매일매일 늘어갔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데 아빠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신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앞섰다.

성탄절 전야에 나는 얼어 붙은 마당에 나와 무릎을 꿇었다. 머리 위로 바람이 불었으며, 검은 나뭇 가지들이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다. 차가운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렸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하는 겁니까?” 나는 피로와하며 말하였다. 갑자기 나는 부끄러워졌다. 나는 오래 전 우리 주변의 세계가 불붙고 있을 때 아빠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다. 그러자 나는 겸손하여져 더 큰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성탄절의 날씨는 좋았다. 성찬식이 끝난 후 성탄절 만찬이 긴 식탁에 놓여졌다. 화려하고 맛이 좋은 냄새가 풍겼다. 성탄절 만찬을 위하여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은 우리뿐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나는 기분이 좋지 못

했다. 갑자기 나는 양고추냉이 향아리를 생각하였고 엄마에게 귀속말로 말하였다. 그리고는 뒤로 빠져 나와 집으로 달려갔다.

다시 만찬회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모두들 흥이 나 있을 때였다. 내가 자리를 뜬 사이에 하이람 랜돌프라는 사람이 물론 대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편지 꾸러미를 가지고 도착했었다. 어머니는 3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모두 사랑과 소망과 축복으로 가득 찬 편지였다.

참으로 즐거운 만찬이었다! 아마 성탄절 칠면조에 양고추냉이를 곁들여 먹어 본 적은 한번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맛이 있었다. 어머니와 나는 그날 아빠가 곁에 계신 것과 같은 느낌을 가졌다.

랜돌프 형제가 물었다. “애야, 그 향아리에 들어 있는 것은 무엇이나?”

“양고추냉이에요. 제가 심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아빠가 하신 것만큼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것 참, 재미있구나.” 그가 말했다. “네가 양고추냉이를 먹는 것을 보니 기쁘다. 사람들 말로는 이 양고추냉이가 독혈증 치료에 특효약이라고 하더구나.”

“그렇다면 양고추냉이를 돌려서 나누어 먹어야지.” 누군가가 외쳤다.

나는 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엄마에게 웃어 보였다.

“성탄절에 아빠한테서 편지도 받고 양고추냉이도 먹는구나!” 엄마가 웃으셨다.

“그래요, 어머니.” 나도 따라 웃었다. “봄이 오면 우리는 서부로 간다!” 우리는 함께 외쳤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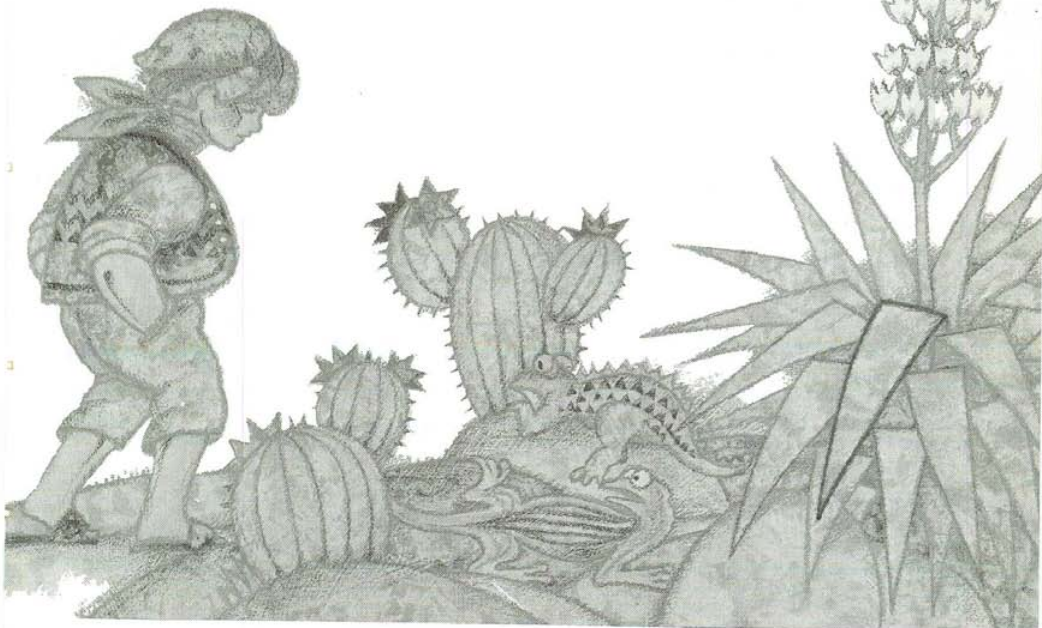
안토니오는 산 주안 학교 운동장 한 통모이에서 같은 2학년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다. 어린이들은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안토니오도 흥이 났다.

리타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조용히 해. 로마 선생님이 들으시면 안되지않아.”

“그래. 계획을 짜야 해.” 에두라도가 말했다.



안토니오의 쫓불



“무슨 계획?” 안토니오가 물었다.

“로마 선생님의 성탄절 선물 맡아. 선생님을 놀라게 해드리고 싶거든.” 리타가 대답했다.

“아주 큰 선물을 해 드리자.”라고 파블로가 제언하였다.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니?”라고 에두라도가 말했다.

“우리 언니가 큰 케익을 만들어 줄 수 있을거야. 우리 언니는 빵집에서 일하고 있거든.” 이사벨이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초를 한 개씩 가지고 오자! 그러면 선생님 케익에 초가 많아질 것 아니니.” 파블로가 말했다.

“난 빨강색 초를 가져 올게.” 리타가 말했다.

“난 초록색 초를 가져 올게.” 에두라도가 말했다.

다른 어린이들이 모두 무슨 색의 초를 가져 오겠다고 말하였다. 안토니오만 빼고 모든 어린이들이 말하였다. 안토니오 집에는 초가 없었고 초를 살 돈도 없었다. 안토니오는 슬펐다. 로마 선생님은 친절하신 선생님이셨으며 안토니오는 선생님을 무척 좋아하였다.

안토니오는 슬며시 친구들의 틈에서 빠져 나왔다. 선생님의 성탄절 케익에 꽃을 초를 가져 올 수 없다고 말하기가 싫었던 것이다. 안토니오는 흙먼지가 이는 길을 따라 발을 질질 끌면서 집을 향해 걸어가다. 그는 걱정을 하면서 팔 뚝히 생각에 잠겨 걸었으므로 도마뱀이 돌 뒤로 숨는 것도, 유카 꽃이 만발한 것도 보지 못하였다.

그날 저녁 내내 안토니오는 말이 없었다. 어머니가 “너 무슨 걱정 거리가 있는 모양이구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안토니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슬퍼 보였다.

다음날 아침 안토니오는 도시락을 들고는 어머니에게 학교에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학교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선생님께 초를 드릴 수 없다니! 그는 생각하였다. 하루 종일 들판에서 있어야겠다. 앉기 좋은 곳을 찾으려고 돌아보다가 안토니오는 큰 흰 꽃송이가 달린 유카 나무를 보았다.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였다. 그러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안토니오는 아름다운 흰 꽃으로 덮인 가지 하나를 꺾어서 조심스럽게 학교에 가지고 갔다. 학교에 가 보니 이미 다른 어린이들이 모두 교실에 있었다. 안토니오가 교실 문을 살며시 열고 들여다보았다. 어린이들이 가져 온 오색 초들로 장식된 큰 케익이 눈에 띄었다. 바로 그때 리타가 그를 보았다.

“네 초는 어디 있니, 안토니오?”

“여기.” 그는 유카 꽃이 만발한 커다란 흰 꽃다발을 내밀었다. 그는 부끄러워서 어디라도 숨고 싶었다.

모든 어린이가 조용했다. 로마 선생님은 안토니오와 그의 꽃을 보시고는, “안토니오 참 아름다운 초구나!” “유카는 때때로 ‘주님의 초’라고도 해요.”라고 말씀하시며 크림색의 흰 꽃을 받아 드셨다.

어린이들이 박수를 쳤다. “참 좋은 생각을 해냈구나, 안토니오.” 이사벨이 말하였다.

로마 선생님이 그의 초, 곧 주님의 촛불을 가지고 서 계신 모습이 아름다워서 안토니오도 즐겁게 미소를 지었다.

*

